

석 사 학 위 논 문

초기개혁주의신조에 나타난 예정론 연구
- 벨직신조 · 도르트신조 ·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중심으로 -

계명대학교 대학원
신 학 과

박 건 석

지도교수 황 재 범

2005년 12월

초기개혁주의신조에 나타난 예정론 연구
- 벨직신조 · 도르트신조 ·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황 재 범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2월

계명대학교 대학원
신 학 과

박 건 석

박건석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 정 중 호

부심 오 우 성

부심 황 재 범

계 명 대 학 교 대 학 원

2005년 12월

감사의 글

무엇보다도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회가 되고, 좀 더 교회를 성장 시키는 교회가 되고, 좀 더 바른 목회자가 되고, 좀 더 성도들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 한 것이 어저께 같았는데 벌써 신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움을 느낍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이렇게 논문을 쓰기까지는 대학원 신학과의 많은 교수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특히 계명대학교 신학과 학부시절부터 교수님들께서 사랑으로 보살 피 주시고 대학원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잘 지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 저에게 이렇게 석사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시며 많은 도움을 주신 황재범 지도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지도 해주신 모습에 대하여 항상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과의 정중호 교수님, 오우성 교수님, 허도화 교수님, 임경수 교수님 등 많은 교수님들의 신약적인 인격과 학문적 깊이에서 나오는 가르침과 격려들이 대학원을 마치고 논문을 쓰는데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큰 산이 없었더라면 결코 오늘날과 같은 영광이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

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영광의 반은 아내 덕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자가 되도록 서원을 하시고 오늘날이 있도록 기도 해 주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가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목회에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하였고, 성도들을 좀 더 자상하게 보살피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고 힘이 되어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묵묵히 도와 주신 성도들이 없었다면 결코 오늘의 영광과 이런 논문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뜨거운 열정과 지금까지 배운 학문을 토대로 해서 더 좋은 목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공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즐겁게 지켜 보아준 사랑하는 아들 성은이 그리고 사랑하는 딸 성혜에게도 이 기쁨을 함께 가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쓰고 신학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무사히 마치고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도와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교수님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논문을 잘 쓰고 대학원을 무사히 마치고 신학석사라는 영광을 얻도록 실제적으로 힘이 되고 큰 격려가 되어주신 아내와 인동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목 차

| | |
|---|----|
| I. 서론 | 1 |
| A.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
| B.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
| C. 연구사 | 4 |
| II. 초기개혁주의 신조에 나타난 예정론 연구 | 7 |
| A. 벨직 신조에 나타난 예정론 | 7 |
| 1. 벨직 신조에 있어서 예정론의 위치 | 7 |
| 2. 벨직 신조에 있어 예정론의 특징 : 타락후 선택설 | 10 |
| B. 도르트 신조에 나타난 예정론 | 14 |
| 1. 도르트 신조에 있어서 예정론의 위치 | 14 |
| 2. 도르트 신조에 있어서 예정론의 특징 : 타락전 예정설 | 16 |
| C.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타난 예정론 | 22 |
|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예정론의 위치 | 22 |
| 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어서 예정론의 특징 : 타락전 예정론 | 30 |
| III. 개혁주의 신조에 나타난 예정론에 대한 평가 | 41 |
| A. 칼빈의 예정론과 비교하여 | 41 |
| 1. 칼빈의 예정론 | 41 |
| 2. 초기개혁주의 신조에 나타난 칼빈의 예정론의 중요교리 | 47 |

| | |
|------------------------------------|----|
| B. 후기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예정론과 비교 | 52 |
| 1. 하지 | 52 |
| 2. 워필드 | 53 |
| 3. 벌코프 | 55 |
| 4. 박형룡 | 56 |
| C. 한국교회에서의 예정론 | 56 |
| 1. 12신조와 한국교회의 신앙고백에 나타난 예정론 | 56 |
| 2. 한국교회에서 예정론에 대한 태도와 방향 | 60 |
| D. 평가 | 64 |
| IV. 결론 | 67 |
| 참고문헌 | 71 |
| 영문초록 | 74 |
| 국문초록 | 76 |

약 어 표

1. *BC* / The Belgic Confession (벨직 신조)
2. *CD* / The Canons of Dort (도르트 신조)
3. *WCF* /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 *Inst.*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y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초기 개혁주의 신조에 나타난 예정론에 대한 발전을 고찰하여 초기 개혁교회의 예정론을 명확하게 밝히고 나아가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교회의 예정론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개신교의 역사는 16세기의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특히, 칼빈은 역사적으로 정통주의와 개혁주의, 그리고 오늘날의 장로교를 형성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보편적으로 칼빈의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고 있는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칼빈의 예정론이며 또한 이것은 철저한 성경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근거한 예정론은 장로교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어주고 있다. 그리고 장로교 신앙에서 구원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정론을 연구하는 것은 필연적일이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신학에서 예정론은 신학자체와 동일하며¹⁾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정론은 칼빈 신학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정론은 이미 어거스틴에 의해서 천여 년 전에 가르쳤던 교리고, 루터, 츠빙글리 또는 칼빈에게 직접 예정론을 가르쳤던 부처(Bucer)에 의해 그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²⁾ 그러나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등을 통해서 개혁자들의 예정론의 교리를 연구 검토하여 “창조의 모든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와 섭리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³⁾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1) 라보도 편저,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 (서울: 성광문화사, 1985), 217.

2) John Calvin, **칼빈의 예정론**,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3), 6.

3) John Calvin, 6.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3권의 구원론에서 예정론을 논하면서 믿음, 중생, 칭의, 기도를 통한 성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예정에 대해서 설명 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예정론이 전체의 33장 중에서 신론의 서론인 제3장에서 다루어짐으로써 신조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개념(key concept)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조에서는 칼빈의 신학을 보다 더 근원적인 교리로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예정의 교리에 근거하여 신조의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칼빈의 예정론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신조들이다. 그러므로 초기개혁주의 신조들에 나타난 예정론을 연구하여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개혁주의적인 예정론을 수용한 과정을 밝혀 보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의 장로교회는 칼빈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적인 예정론에 대하여 아주 소극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교회의 소극성을 고찰하는 동시에 개혁주의적인 예정론이 지니고 있는 교리적 가치를 밝히려고 한다.

B.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칼빈 이후, 개혁주의 신앙고백들이 많이 제시되어졌다.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신앙고백은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웨스트민스터 대요일문답, 웨스터민스터 소요일문답 포함) 등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예정론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벨직 신조,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려고 한다. 벨직 신조는 모든 신조들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제외하고는 칼빈주의적인 교리체계를 가장 잘 진술해 놓은 신조라고 할 수 있다.⁴⁾ 도르트 신조

는 사실상 예정론을 다룬 신조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신앙고백으로서 지금 한국의 대부분의 장로교회들이 이 신앙고백을 표준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벨직 신조,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한정 하려고 한다. 그러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타나는 예정론과 개혁주의 신조에 나타나는 신조의 위치는 점점 다르게 발전을 하였다. 이것은 예정론을 구원론 아니면 신론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데에 대한 조직신학 체계의 문제이기도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칼빈의 예정론과 개혁주의 신조에 나오는 예정론의 위치와 발전 과정을 비교하면서 고찰 하려고 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인 현 시각에서 양자가 갖는 합당성을 비교 연구하며, 또한 각 신조들 안에서 핵심개념이 되고 있는 예정론이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예정론의 교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예정론의 중요 내용인 이중예정, 예지, 타락 전 혹은 타락 후 예정, 성도의 견인, 자유의지 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하여 후기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예정론이 어떻게 발전을 하였는지를 개혁주의 신조에 나오는 예정론과 비교 하려고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정통주의적이며 개혁주의적인 신학자들인 하지, 워필드, 벨코프, 박형룡 등의 예정론과 비교하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의 예정론을 연구하면서, 한국에서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신앙고백인 12신조에서 예정론의 중요교리인 이중 예정론 등이 누락된 이유와 한국 교회에서의 예정론의 신앙이 쇠약해진 이유를 연구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를 통해서 예정론은 결코 기독교인의 신앙을 약하게 하거나 선교의 의지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목회적인 차원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과 선교에 유익하다는 것을 밝혀서 예정론이 목회론적으로도 아주 유익한 교리라는 것을 밝히려려고 한다.

4) Philip Schaff, 신조학, 박일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171-172.

C. 연구사

예정론은 칼빈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므로 그 동안 역사적으로 예정론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되어왔다. 특히 국내의 각 신학대학교에서 발표된 석·박사 학위 논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연구된 것 중의 하나가 예정론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예정론이 그 만큼 개혁주의 신학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예정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그 주제들이 몇 가지로 제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칼빈의 예정론 연구이다⁵⁾. 이것은 많은 신학대학교에서 학위 논문으로 연구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칼빈의 예정론과 칼 바르트의 예정론의 비교 연구이다⁶⁾. 이 분야의 논문은 주로 장신대학교에서 발표 되었다. 그 다음에는 칼 바르트의 예정론만을 연구한 논문이 있다.⁷⁾ 그 밖에 예정론에 대한 웨슬리의 이해에 대해서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찾을 수

5) 이 분야에 대한 논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황재범, “칼빈의 예정론 이해”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1986).

정재돈, “칼빈의 예정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대학원, 서울, 2002).

김형기, “갈렙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1).

김원, “칼빈의 예정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9).

김희중,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예정론 소고”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신학대학원, 1991).

6) 이 분야에 대한 논문을 최근 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김중명, “칼빈과 칼 바르트의 예정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원, 2001).

김병훈, “칼 바르트와 존 칼빈의 예정론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1999).

김현동, “갈렙과 바르트의 예정론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9).

김진운, “J. Calvin의 예정론과 K. Barth의 예정론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서울, 1997)

7) 이 분야에 대한 논문은 다음의 것들이 있다.

김주성, “칼 바르트의 예정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1).

조익홍, “칼 바르트 예정론 소고: 교회 교의학Ⅱ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1).

박정민, “칼 바르트(Karl Barth)의 예정론 고찰”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4).

김강덕, “칼 바르트(Karl Barth)의 예정론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1).

있다.

본 논문과 연관이 되어있는 논문으로서는 안양대학교에서 발표된 ‘도르트 회의의 예정론 논쟁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끼친 영향 고찰’이 있다.⁸⁾ 그러나 이것은 개혁주의 신조에 나오는 예정론의 전반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과 가장 비슷한 내용을 가진 논문으로는 ‘개혁교회 신조에 나타난 존 칼빈의 예정론’⁹⁾이라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본 연구자의 논문과 유사한 내용을 가진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과 논문의 구성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난다. 먼저 위의 논문은 개혁교회의 모든 신조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는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오는 주요 예정론 교리를 개혁주의 신조들에 나오는 것들과의 단순한 비교이다. 그리고 이 논문은 한신대학에서 나온 논문으로서 결론 부분에서는 개혁주의적이기보다는 진보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논문으로서 본 논문과 아주 유사한 주제로써 쓴 논문이 있는데 그것은 합동신학대학원에서 2004년에 나온 것으로 제목은 ‘칼빈주의 예정론(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예정 교리를 중심으로)’¹⁰⁾라는 신학석사 학위 논문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M.Div 논문으로 예정론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많이 다루었고, 개혁주의 신조에 대해서는 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밖에 다루지 않았다.

본 논문은 벨직 신조, 도르트 신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 나타난 예정론을 다루고 있다. 그 이유는 위의 3개의 신조 안에 실제적으로 예정론이 다루어져 있고, 또한 오늘날의 개혁교회의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위의 세 신조에 나오는 예정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8) 김종교, “도르트 회의 예정론 논쟁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끼친 영향고찰” (석사 학위논문, 안양대학교, 1998)

9) 이승학, “개혁교회 신조에 나타난 예정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10) 김기형, “칼빈주의 예정론(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예정교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04).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벨직 신조,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타나는 예정론을 칼빈의 예정론과 후기의 개혁주의 신학자, 그리고 한국교회의 예정론을 비교하여 연구 한다. 그리고 본 논문의 결론에서 한국교회에서의 긍정적인 역할과 방향을 제기 할 것이다. 이것이 본 논문의 독특성이라고 말 할 수 있다.

II. 초기개혁주의 신조에 나타난 예정론 연구

A. 벨직 신조에 나타난 예정론

1. 벨직 신조에 있어서 예정론의 위치

벨직 신조(The Belgic Confession)는 1561년 귀도 드 브레(Guido de Bres)가 개혁교회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프랑스어로 작성한 것이다.¹¹⁾ 그리고 벨직 신조는 그 순서에 있어서는 프랑스 신앙고백(The Gallican Confession or French Confession)을 따르고 있으나, 프랑스 신앙고백 보다는 논쟁적이지 못하다. 내용에서는 삼일일체, 성육신, 교회론, 성례론에서 훨씬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모든 신조들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제외하고는 칼빈주의적인 교리체계를 가장 잘 진술 해주고 있다.¹²⁾ 이 신조는 37개 항목의 규범 진술들로 되어있는데, 사도신경의 분류에 따라 신론에서부터 종말론까지의 조직적 분류 안에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내용에 있어서 성경의 풍부한 서면 관계와 교회규범 일람, 이중의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진술들, 성령론과 교회론 사이를 율법과 복음의 분류, 양성론에 대한 관점, 구원론과 기독교론의 밀접성, 교회의 표지로서의 교회 규범의 강조와 종말론에 대한 항목들이다. 예정론은 인죄론에서 다루어지는데 죄벌론 없는 선택론을 진술하고 있다. 만일 이 신조가 죄벌의 진술이 된다면 이는 단순한 형벌들의 진술이다.¹³⁾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제2장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하나는 롬1:20에 명시된 세상의 창조, 보존과 통치이며 다른 하나는 “넓게, 보다 알기 쉽고 완전한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벨직

11) Philip Schaff, 170.

12) Philip Schaff, 171-172.

13) 최병섭, 개혁파 신조서들의 신학 사상들 (서울: 새순출판사, 1998), 75.

신조는 하나의 다른 연관성, 즉 삼위일체의 연관성 안에서(제9장), 우리 사람 안에서 삼위일체의 작용으로부터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인식을 말한다.

성경에 대해서는 제4장에 확고하게 기술 되고 있다. 성경은 영감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책이다. 이는 기록이 명령을 통하여 생겼으며, 십계명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제3장). 이 영감에 근거해서 이 신조는 교회규범과의 관계에서 성경과 전통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게 한다. 성경의 교회 규범적 범위는 전통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규정된다(제5장) 이는 성경이 이러한 주체로부터 능력과 효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항상 새롭게 증명을 한다.¹⁴⁾

양성론에 대해서는 제19장에서 진술 하는데 초기 역사의 기독교적 싸움들의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라는 질문과 안셀름(Anselm)의 ‘왜’라는 질문 안에서 정밀하게 짜여진 형태로 보여준다. 이런 관심은 한 사람 안에서 통일된 완전한 신성과 인성에 있다.¹⁵⁾

교회와 성찬에 대해서는 제27장에서 제34장까지이며, 폭넓은 견해를 보여준다. 제29장에서는 참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다. 참 교회는 복음의 순수한 교리가 전파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가 순수하게 이행이 되어야 하며, 참된 권징이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하였다.¹⁶⁾ 제30장에서 참 교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목사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고, 성례가 이루어지고, 목사와 더불어 장로와 집사가 교회의 회의를 구성하며, 이렇게 함으로 교회가 보존이 되고, 참된 진리가 전파된다고 하였다. 특히 모든 목사는 동일한 힘과 능력을 가진다(제31장)고 하였다. 성례에 대해서는 제32장에서 언급 하는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례를 제정하시고 인을 치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약속 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14) 최병섭, 76.

15) 최병섭, 76.

16) 김의환 편저, **개혁주의 신앙 고백집**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197-198.

일으켜 주시고, 강하게 해주신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는 성례로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셨다고 하였다. 제34장에서는 세례를 말하면서 세례의 의미를 마치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몸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물 뿌림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영혼을 내적으로 죄를 깨끗이 씻어 주며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다고 하였다. 제35장에서는 성만찬에 대해서는 이미 중생을 얻고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심을 믿고 고백을 한다고 하였다. 또 주께서는 이 영적이며 신령한 양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의 가시적인 제도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인 것이다. 또 성례식을 통하여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감사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벨직 신조는 성만찬에서 기념설을 말하고 있다.¹⁷⁾

벨직 신조는 근본적으로 개혁주의적 조직신학 체계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신론에 대해서는 1-11장, 인간론에 대해서는 12-15장, 기독교론에 대해서는 16-21장, 구원론에 대해서는 22-26장, 교회론에 대해서는 27-35장, 종말론에 대해서는 3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¹⁸⁾ 그러므로 벨직 신조의 이러한 순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1권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2권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으로서의 율법과 성경을 소개하고 있다. 3권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로서 구원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특히 3권에서 구원론을 말하면서 순서가 믿음, 중생, 회개, 성화, 칭의, 그리스인의 자유,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 순서인 마지막으로 예정론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벨직 신조는 예정론을 신론 다음의 기독교론에서 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7) 김의환 편저, 199-204.

18) Joel R. Beeke and Sinclair B. Ferguson editors, *Reformed Confessions Harmonized*, (Grand Rapids : Baker Books, 1999), 4.

는 구원론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택한 자를 구원 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벨직 신조의 제16장에서 영원한 선택을, 제17장에서 타락한 인간의 회복을, 제18장에서 제21장까지는 예수그리스도의 성육과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있는 두 성품의 연합과 구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심, 기독교인을 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한다. 그리고 제2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칭의를 말하고 있으며, 제23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하심을 얻는 조건, 제24장에서 인간의 성화와 선행을 언급하는 동시에 회개와 성화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정론의 위치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벨직 신조는 칼빈(1509-1564년)이 생존 해 있는 기간에 쓰여졌지만 칼빈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예정론의 위치에서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예정론의 체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벨직 신조는 예정론을 후기 신조처럼 신론에서는 다루고 있지만 구원의 근거로서 예정론을 말하고 있다. 또 예정론을 기독교의 첫 부분에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또 택한 자들을 구원을 하시고 의로워 하시며 성화에 이르도록 한 것임을 가르쳐 준다. 이것은 벨직 신조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보다 훨씬 더 정통적이고 원인을 중요시 하는 스콜라주의적임을 알 수 있다.

2. 벨직 신조에 있어 예정론의 특징 : 타락후 선택설

벨직 신조의 체계를 보면 타락 전 예정보다는 타락 후 예정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벨직 신조에는 제11장까지는 신론을 말한다. 그리고 제12장부터 창조론과 구원론을 말한다. 창조론과 구원론을 설명하는 순서를 보면 창조(12장), 섭리(13장), 타락(14장), 원죄(15장), 영원한 선택(16장), 타락한 인간의 회복(17장),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18장)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타락과 원죄를 설명

한 후에 영원한 선택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벨직 신조는 타락후 예정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벨직 신조는 칼빈의 체계를 따랐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칼빈은 타락전 예정론을 말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논란이 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바울이 우리는 창세전에(엡1:4)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¹⁹⁾는 말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칼빈의 이 말을 인용 하면서 칼빈은 타락전 예정을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내용만으로는 칼빈이 타락전 예정을 말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의 기독교 강요의 체계를 통해서 칼빈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체계를 보면 타락론이 구원론과 예정론 보다 앞에 나온다.

기독교 강요 1권에서는 신론(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고, 2권에서는 타락론과 그리스도론(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 처음에는 율법으로 조상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을 말한다. 그리고 3권서는 구원론(구원의 은혜를 받는 길)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정론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체계상으로 분명히 타락을 예정보다 앞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벨직 신조는 예정의 위치에서는 칼빈을 따르고 있다. 칼빈과 같은 구원론의 체계에서 따르고 있는 것이다. 예정론에 대한 벨직 신조의 이런 특징들이 핵심개념이 되어서 기독교론과 구원론을 이끌어 가고 있다.

빌립 샤프의 지적처럼 벨직 신조에서는 예정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 도르트 종교회에서의 예정론에 대한 논쟁이 있기 전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1537년에 만든 제네바 교회의 신앙문답과 그것을 확대시킨 1542년 신앙문답서에도 예정에 대한 문답을 넣지 않았다. 1536년에 만들어진 제1스위스 신앙고백에는 자세한 예정의 교리는 논하지 않고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말하고 있다. 칼빈 자신이 1559년에 직접 쓴 프랑스 신앙고백에서도 항목을

19) *Inst.*, 3.22.2.

만들어 예정론을 설명하지 않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졌음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 1560년에 만들어진 스코틀랜드 제1 신앙고백에서는 7조와 8조에서 선택의 교리를 취급하고 있으나 이중예정론과 같은 교리는 말하지 않고 다만 선택 받은 부류와 차별이 있는 버림받은 사람들이란 말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버릴 사람들을 예정하셨다는 말은 없다. 1561년에 만들어진 벨직 신조에서는 제 16장에서 비록 짧은 내용으로 기록 되었으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예정론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벨직 신조는 그 당시에 기록된 신조 중에서는 칼빈의 예정론을 가장 잘 나타낸 신조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그 첫 조상의 범죄로 인해 타락되어 멸망에 빠졌다는 것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모습, 즉 자비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셨음을 믿는다. 자비롭다함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노력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 파멸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보존하시기 때문이요, 공의로우다 함은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타락과 파멸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심에 있다.²⁰⁾

이와 같이 벨직 신조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원죄와 자범죄로 타락과 멸망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여졌음을 말하고 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택한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되어진 것이며, 또한 무조건적인 선택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이중예정임을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벨직 신조의 키 컨셉트가 되어서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의 체계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에

20) 김의환 편저, 187.

대해서 말하기를 “그 아들로 하여금 그 보좌를 떠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아들을 복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범죄 한 인간일지라도 그를 기뻐하시고 위로해주시는 이심을 믿는다.”²¹⁾고 하였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를 참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하였다.²²⁾ 믿는자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재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믿는자를 구원하셨다고 하였다.²³⁾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얻는 구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²⁴⁾ 그러므로 믿는자의 행위나 자량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얻는 조건이 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 할 때 의롭게 된다.²⁵⁾ 그러므로 인간이 행하는 선은 결코 구원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 인간이 선을 행하기 전일 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것이다.²⁶⁾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한 택한 자들의 구원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벨직 신조는 하나님의 예정론에 근거해서 기독교론과 구원론을 설명 하였다. 그리고 본 신조에서의 예정론은 비록 짧은 내용으로 되어있지만 예정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무조건적인 선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 이중예정 등을 말하고 있다.

21) B C., 17.

22) B C., 18.

23) B C., 21.

24) B C., 22.

25) B C., 23.

26) B C., 24.

B. 도르트 신조에 나타난 예정론

1. 도르트 신조에 있어서 예정론의 위치

도르트 신조는 아르미안 주의자들의 항론파를 대항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데 아르미안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다음과 같다. 1)예지된 믿음에 근거한 선택 (election based on foreseen faith), 2)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편성(the universality of Christ's atonement), 3)인간의 자유 의지와 부분적 타락(the free will and partial depravity of man), 4)은혜에 대해 저항할 수 있음(the resistibility of grace), 5)은혜의 상실의 가능성(the possibility of a lapse from grace이다.²⁷⁾이다. 그러므로 1618-1619년에 열린 도르트 종교 회의(the Great Reformed Synod of Dordrecht)에서 항론파 들의 주장을 반대하는 도르트 신조를 채택을 하였다. 도르트 신조에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간의 전적타락 =전적무능력(Total Inability) : 원죄는 인간의 타락을 포함한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 속에 있기 때문에 그의 자연의 빛은 구원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세 번째 교리), 2)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 어떤 사람은 영원한 삶으로, 어떤 사람은 저주로 예정이 되었다. 그리고 이 예정은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조건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와 관계없이 세계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목적에 근거 되어 있다.(첫 번째 교리), 3)제한적 속죄(Limited Atonement)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과는 선택된 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리스도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만 죽었다.(두 번째 교리), 4)불가항력적으로 내려주는 은혜(Irresistible Grace) :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적인 자의 경우에 모든 의지를 지배한다.(네 번째 교리), 5)성도로의 견인(Perseverance of Saints) :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침내 은혜로부터 탈선하지 않도록 보전한다. 선택된 사람은 잠시 탈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결국은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다섯 번째 교리)

27) Joel R. Beeke and Sinclair B. Ferguson editors, 6.

영어에 있어서 이 다섯 가지 말의 첫 자를 모으면 T, U, L, I, P 인데 Tulip(울금꽃)이란 꽃 이름이다. 그래서 이것을 Tulip라고 부르기도 한다.²⁸⁾ 도르트 신조는 비록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된 것은 아니지만 위의 다섯 가지 교리와 결론으로 되어 있다. 도르트 신조는 전체가 4부분으로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이것을 5대 교리라고 부른다. 이것은 1610년의 향론파들의 5대 교리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²⁹⁾ 아르미우스는 예정교리에 의의를 제기하면서 누구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만인 구원설과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사역에 협력해야 한다는 신인 협동론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아르미안주의자를 반대하고 예정교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개혁주위 신학자들이 화란의 도르트에 모여 종교회의(노회, synod)를 하여 도르트 신조를 만들었다. 이 회의에는 유럽 각처에서 이름 있는 개혁주의 학자들이 참석하였다. 도르트 종교회의에서는 예정, 그리스도의 죽음과 인간의 구원, 인간의 타락과 회심 및 그 방법,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 5개조 93항에 달하는 신조를 작성함으로써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내놓았다. 칼빈주의자들은 아르미안주의자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도르트 신조를 만들고, 예정론의 교리를 조직화 한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론은 구원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으로 사용이 되었고, 벨직 신조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도의 구원의 근거로서 예정론을 다루었다. 그러나 도르트 신조는 대부분의 내용이 예정론으로 되어있다. 그 결과로 도르트 신조 이후로는 예정론이 정통 칼빈주의와 개혁주의 신학의 주요 내용이 되었고, 또 중요하게 인식을 하게 되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내용이 바로 개혁주의의 중요한 신앙이 되었던 것이다.

도르트 신조에서 예정론의 위치를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왜냐하면 도르트 신조는 전체의 내용이 예정론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 도르트 신조는 예정론이라는 특정한 교리를

28) Loraine Boetner, **칼빈주의 예정론**, 홍의표 번역 (대구: 보문 출판사, 1987), 78.

29) Joel R. Beeke and Sinclair B. Ferguson editors, 6.

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1장에서는 예정론을 18개 항에 걸쳐서 서술을 하였다.³⁰⁾ 둘째 교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구속’으로 제9장까지 되어있다. 셋째와 네 번째 교리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로의 회심, 그리고 회심 후의 태도’로 17장에 걸쳐서 설명을 한다. 그러므로 이 신조의 모든 내용이 예정론인 것이다.

2.도르트 신조에 있어서 예정론의 특징 : 타락전 예정설

도르트 신조는 타락전 예정론이다. 도르트 신조에서 다음 구절을 인용하면서 타락 후 예정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

선택은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의 목적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주권적인 선한 뜻에 따라 단순히 은혜로 선택하신 어느 수의 사람들의 중보자며 머리며 또 구원의 토대가 되도록 영원부터 임명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과오 때문에 본래의 도덕적 상태로부터 타락한 전 인류 가운데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다.³¹⁾

위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오 때문에 본래의 도덕적 상태로부터 타락한 전 인류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자를 택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르트 신조는 타락후 예정을 말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르트 신조의 체계에서 예정론의 위치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도르트 신조는 예정론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사역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므로 예정론이 도르트 신조의 핵심개념이 되어있고, 이것이 도르트 신조의 전체의 내용을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도르트 신조에서 예정론의 위치는 신론이다. 이렇게 예정론을 신론의

30) 김영재, **교회와 신앙고백** (서울: 성광문화사, 1989), 164-165.

31) *C D.*, 1.7.

위치에 두는 체계는 타락전 예정론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도르트 신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예정론을 신론에 두고 있다. 따라서 도르트 신조는 적어도 체계론 적으로 볼 때 타락전 예정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르트 신조는 아르미안주의의 5대 교리를 배격하기 위해서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배격하고 인간의 무능력을 강조한다. 이것을 셋째와 넷째 교리에서 말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 진노의 자식들이며, 구원을 받을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이 악으로 기울어져 죄에서 죽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성령이 주시는 신생의 은혜 없이는 그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거나 그들의 성질의 부패를 개선하거나 그들 자신을 개혁에 맡길 수도 없으며 그런 일을 원하지도 않는다.³²⁾

16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므로 모든 선행을 만드시는 존경할 만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 하시지 않는 한, 사람은 자기의 자유의지로는 자기의 타락에서 회복될 소망을 가질 수 없으니, 사람은 천진난만한 상태에 있을 때 그 자유의지의 오용으로 스스로 파멸에 빠져 들고 말았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도르트 신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배격을 한다. 예정론의 이런 사상이 도르트 신조에 들어 있고 또 이것이 칼빈주의 5대교리의 중요 내용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도르트 신조의 전체를 이끄는 핵심개념이 된 것이다.

도르트 신조에서의 예정론의 첫째 교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교리는 제1장에서 제18장까지 되어있다.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내용은 제6장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제6장에 보면

32) *C D.*, 3-4.3.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걱정하심에 달려있는 것이다.(행 15:18, 엡1:11)”³³⁾라고 한다. 여기서 구원을 얻은 자의 믿음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말한다. 또 예정이 우리에게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임을 말한다. “아무리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택한 자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여 믿도록 하시며, 반면에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악함과 고집대로 버려두사 심판을 받게 하신다.”³⁴⁾ 또 선택과 유기의 이중 예정에 대해서도 말을 한다. “다 멸망 받기에 마땅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자비롭고 의로우신 택함과 유기의 작정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신대로 사악하고 범죄 하여 요동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하지만 거룩하고 경건한 영혼들에게는 말 할 수 없는 위로로 도우 신다”³⁵⁾이다.

제7장에서는 “선택이라는 것은,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그들의 최초의 상태에서부터 타락하여 죄와 파멸의 결과를 받게 됨에 따라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중보자로 또한 택한 자의 머리와 구원의 기초로서 세우신 그 분 안에서 구원 받은 자의 일정한 수를 뽑은 것이다.”³⁶⁾라고 한다. 이것은 예정의 교리가 창세전의 선택이요 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임을 말하고 있다. 또 이 선택은 “그의 선하신 주권에 따라 은혜로 인하여 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목적이 되었다”³⁷⁾고 한다. 그러므로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서 된 것으로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제8장에서는 선택의 목적을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 이 성경에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회개케 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

33) C D., 1.6.

34) C D., 1.6.

35) C D., 1.6.

36) C D., 1.7.

37) C D., 1.7.

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노래하게 하였다. 또한 구원과 구원의 길을 찬양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셨음을 보여주고 있다.(엡1:4-5, 2:10)³⁸⁾라고 말하고 있다.

제9장에서는 선택의 조건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는 것은 그 선택의 선행조건이나 원인 등으로서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예지적인 믿음이나 그 믿음에 대한 순종, 거룩함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떤 착한 성품이나 기질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³⁹⁾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선행을 행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선택을 하였다고 한다. 즉, “그것은 인간이 선택을 받아서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에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등의 순서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모든 선행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 것이며, 선택 받음으로 인하여 믿음과 거룩함과 그 밖의 구원의 은사를 얻게 되어 결국은 그 열매로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⁴⁰⁾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게 되고, 거룩하여 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제10장에서는 선택의 근거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원인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세우신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범죄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기꺼이 얼마를 뽑아서 자기에게 속한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⁴¹⁾이라고 말하며 성경의 근거로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롬 9:11-13) 와 “영생을

38) C D., 1.8.

39) C D., 1.9.

40) C D., 1.9.

41) C D., 1.10.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행 13:48)는 구절이다.

제11장에서는 예정은 지혜롭고 불변하시며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결코 중단되거나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제12장과 제13장에서는 예정교리의 유익을 말하고 있으며 제14장에서는 선택의 가르침이 선지자와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되었다고 한다.⁴²⁾

제15장에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설명이 요구되는 것은 이 영원하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택하심에 관하여 이다. 이는 거룩한 성경에 나타난 증거로서, 모든 인간이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중 얼마가 택함을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이다”⁴³⁾고 한다. 그러므로 예정의 교리는 성경이 증거 하는 것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 중 얼마만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제한 속죄를 말하고 있다.

제18장에서는 특별히 이중 예정 중에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엄한 유기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대답할 수 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 하겠느냐”(롬 9:20)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마 20:15)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값으심을 받았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롬 11:33-36)⁴⁴⁾

도르트 신조의 두 번째 교리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구속’에서도 제8장

42) *C D.*, 1.11.

43) *C D.*, 1.15.

44) *C D.*, 1.18.

과 제9장에서 예정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8장에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이 생명을 얻어 구원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운 뜻과 목적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 선물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한 것이다.”⁴⁵⁾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게 하였고, 또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게 하셨다. 또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확증하셔서 모든 사람과 족속과 민족, 즉 영원 전부터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토록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⁴⁶⁾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보편구원이 아니라 아들에게 주신 자만을 구원을 얻게 하시는 제한적인 선택인 것이다.

제9장에서는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고,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으실 것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선택을 받은 자들이 때가 되면 모여서 교회가 될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 할 것이라고 한다.

도르트 신조의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를 반대하는 잘못된 주장에 대하여 하나하나 배격을 하며 변론을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교리에서는 1절에서 9절까지 이며 두 번째 교리에서는 1절과 7절이며 셋째와 네 번째 교리에서는 제1절에서 잘못된 교리를 배격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르트 신조에서 예정론의 특징은 구원을 얻은 자의 믿음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말한다. 이 작정은 타락한 자들 가운데서 일부를 구원으로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는자를 선택으로 예정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이다. 그리고 선택과 유기의 이중 예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선택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증보자로 그리고 택한 자

45) *C D.*, 2.8.

46) *C D.*, 2.8.

의 머리와 구원의 기초로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을 자의 일정한 수를 뽑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서 되어진 것으로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선택의 목적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노래하게 하는 것이며, 선택의 조건은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예지적인 믿음이나 그 믿음에 대한 순종 거룩함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떤 착한 성품이나 기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선택을 하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예정의 교리는 성경이 증거 하는 것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 중 얼마만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제한 속죄를 말하고 있다. 특히 이중 예정론을 말하면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성경 롬9:20, 마 20:15, 롬 11:33-36등을 근거해서 반박을 한다. 이런 예정론의 두 번째 교리와 세 번째와 네 번째 교리 그리고 다섯 번째의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이끌어 내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C.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타난 예정론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예정론의 위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⁴⁷⁾은 칼빈주의의 신학체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서⁴⁸⁾, 이 신앙고백의 중요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한다. 성경에 대하여 본 신앙고백서가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제1장의 1항에서 10항에 걸쳐 설명을 한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지식을 오직 성경에서만 얻는다는 것과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규범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회는 성경말씀대로 철저하게 개혁이 되어야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청교도적인 신앙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있음을 본다.⁴⁹⁾ 우리가 성경을 어떻

4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은 1647년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모인 신학자와 목사들의 총회에서 승인된 신앙고백서로서, 스코틀랜드와 영국과 아일랜드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들의 통일된 신앙고백의 내용이다. 이후 세계 여러 나라의 장로교회들은 이 내용을 성경에 계시된 기독교 신앙의 표준적 진술로 인정 하고 있다.

48) Loraine Boetner, 379.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는 5항과 6항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5항. 우리는 교회의 증언을 듣고 성경을 높이 평가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도록 감동을 받고 이끌리게 마련이다. 그 내용이 거룩한 점, 그리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점, 성경에서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성경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완전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그 뿐 아니라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우리가 충분히 설득을 당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따라 그리고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속에 내적으로 증거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서 오는 것이다.

6항.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및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있다.⁵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하되, 그것을 신앙고백에서 계시라는 개념아래 설명하기는 불란서 신앙고백(1559)과 벨직 신조(1561)에서 부터이다. 즉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로 나누어 말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신 것을 가리켜 일반계시라고 하며,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는 것을 특별계시라고 말한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성경에 관한 내용 중 1항에서 진술을 한다.⁵¹⁾ 예정론에 대하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제2장의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과 제3장의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고백에서 서술을 하고 있다.

49) 김영재, 162.

50) *W C F.*, 1,5-6.

51) 김영재, 162-163.

웨스트민스터의 신앙고백의 또 하나의 특징적 내용은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한 교리를 계약신학의 관점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7장에서 이것을 서술하고 있는데 계약신학 또는 언약신학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과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어 이를 지키시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 체계화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그러한 관점에서 보려는 신학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본 신앙고백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었고(제7장 2항), 두 번째 맺으신 언약은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한 언약으로 이를 은혜 계약이라고 한다(제7장 3,4항). 이 언약이 율법 시대에는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양,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든 모형과 규례를 통하여 진행되었으니, 이것이 구약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말씀의 전파와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를 행하는 규례를 통하여 집행되는 것이 신약이라고 한다(제7장 5,6항). 제8장에서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면서도 역시 계약사상에서 보고 있다.⁵²⁾

제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으로 택함을 입은 자는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지만(제10장 1항),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말씀과 보통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으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오지 못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제10장 4항)고 한다. 제10장 3항에서는 영아로 죽은 아기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영아는 중생과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 이것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이 죽은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시원스럽게 대답 해 주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밝히 말씀하지 않는 사실을 사변적으로 추론하는 것이다.⁵³⁾

본 신앙고백서는 신앙에 대해서 계속 말 하고 있는데, 제11장에서는 칭의의 교리를 말하고, 제12장에서는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고 한다. 제13장에서는 실효 있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중생함을 받고 그들 속에 새 마음

52) 김영재, 169-171.

53) 김영재, 172.

과 새 영으로 지음을 받아 날마다 성화된다고 한다. 제14장에서는 다시 믿음에 관하여 말하는데 이번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Of saving Faith)에 관하여 말한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이다(제14장 항). 제17장에서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이 당신의 성령으로 실효 있게 부르시고 성화시키시는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떨어지거나 끝끝내 타락하는 일은 없다. 그들은 끝까지 견디어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⁵⁴⁾라고 한다. 2항과 3항에서 이런 성도의 견인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그들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효능 이라고 한다. 제18장에서는 다시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라고 말한다. 주 예수를 믿는 성도가 갖는 확신은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실을 믿으며 약속하신 내적 증거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는 성령의 증거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⁵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구속론에 이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윤리 및 종교 생활부터 논하고 있는 것이다. 제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관하여, 제20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과 자유에 관하여, 제21장에는 종교적인 예배와 안식에 관하여, 제22장에서는 합법적인 맹세와 서약에 관하여, 제23장에서는 위정자에 관하여 말을 하고, 제24장에서는 혼인과 이혼에 관하여 말을 한다. 그리고 25장 이하 31장까지에서 교회론을 말하고 마지막 32장과 33장에서 죽음과 부활 및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한다. 종교개혁시대에 나온 대부분의 신앙고백에서는 교회론을 먼저 논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말씀의 순서를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신앙고백서에서 교회론이 뒤에 오는 것은 시배적인 배경과 당시의 사변적인 신학적 경향 및 관심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⁶⁾

54) *W C F.*,17.1.

55) *W C F.*,18.2.

56) 김영재, 174-175.

제21장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예배와 안식에 관한 진술은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청교도들의 신앙을 잘 대변하고 있다. 22장에서는 합법적인 맹세와 서약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특히 7항에서 말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명심해야 할 내용이다.

-- 자기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을 서원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약속과 능력을 받지도 않았는데 서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교황청에 속한 수도원에서 평생을 독신 생활이나 빈곤한 생활을 하며 항상 복종할 것을 서원하는 것은 보다 높은 완전과는 거리가 먼 것일뿐더러, 그것은 미신적이며 죄로 가득한 함정이므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거기에 빠져 얽매어서는 안 된다.⁵⁷⁾

가령 부흥회에서 지나치게 많은 연보를 할 것을 서원시킨다든지, 감수성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오랜 기간을 두고 자기를 살피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소명을 받도록 하지 않고 수양회 등 집회 중에 즉흥적으로 목사가 될 것을 서원시키는 일은 아주 잘못된 일임을 일깨워 준다. 그리고 감정에 치우쳐 잘못 서원한 일에 얽매일 이유가 없음을 가르친다.⁵⁸⁾

제 23장은 위정자에 관한 서술이다. 제3항에서 위정자가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역설한 것은 칼빈이 피력한 견해인데, 본 신앙 고백서의 작성자들이 이를 초안할 때 장로교가 영국의 국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현행법에 준하여 성문화했으므로 위정자가 교회를 상당한 정도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미국 장로교가 본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일 때는 이 조항을 개정하여 채택하였다. 그래서 미국의 고백서는 제31장에서 위정자가 노회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제2항은 완전히 삭제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만 하더라도 위정자가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하는 나라이므로 미국과 한국과는 사정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초대 교회의 신조는 구체적인 윤리생활에는

57) *W C F.*, 21.7.

58) 김영재, 175.

언급함이 없이 그리스도교의 순수한 기본 교리 만을 고백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두 그 신조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종교생활과 윤리에 관한 신조의 경우 어느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거기에 타당한 보편적인 것과 그렇지 못한 특수한 것이 있으므로, 교회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러한 조항은 마땅히 수정하거나 또는 새로 작성해야 할 것이다.⁵⁹⁾ 제24장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것으로 결혼이란 음욕의 불길을 끄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축복된 제도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영적이고 육체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⁶⁰⁾ 제25장에서 33장까지는 교회, 성례, 종말론에 대해서 고백을 한다. 교회와 성례에 관해서 가 구원론과 선행론 다음에 오는 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같다. 그러나 국가론이 선행론에 들어간 점에는 차이가 있다. 칼빈은 교회론 다음에 국가론을 다룬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매개시키는 외적인 수단이며, 국가는 보다 더 외적인 은총의 수단임을 암시한다.⁶¹⁾

1647년 영국에서 발표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성령과 선교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이것은 선교는 경건주의 때부터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며 경건주의 이전에 나온 신앙고백서에서는 선교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 성령론은 벨직 신조에는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빠진 것은 아마도 객관적인 교리 변증에 관심을 기울인 전통주의 신학의 경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⁶²⁾ 미국에서 18세기의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하는 제1차 대각성 부흥운동과 19세기 제2차 각성운동을 경험했고, 19세기 복음주의 선교활동을 경험한 미국의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약점으로 생각한 예정론과 선교론 그리고 선언문을 1903년에 첨가하였다.⁶³⁾

59) 김영재, 175-176.

60) 이형기, **세계개혁교회의 신앙고백**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320.

61) 이형기, 320.

62) 김영재, 161-162.

63) 이형기, 325.

제34항은 ‘성령에 관하여’인데,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성령을 별로 강조 강조하지 않는 것을 설명한 것이며 18·19세기의 미국 부흥운동이 보여준 잘못된 성령이해를 어느 정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5장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선교에 관하여 에서는 1619년 도르트 회의가 결정한 제한속제의 협소지향주의와 배타주의를 의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만인을 위한 보편적인 구원임을 강조하였다.⁶⁴⁾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미국에 와서는 칼빈의 개혁주의적인 예정론의 신앙이 많이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어서의 예정론의 위치는 특별히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한 고백에 이어 제3장에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 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예정론을 신론에 속하는 신조의 제일 앞부분에 두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은 구원론에서 예정론을 설명하는 칼빈과 기독교론에서 예정론을 설명하는 벨직 신조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예정론을 창조와 섭리 또는 인간의 타락과 죄의 형벌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 등에 관한 진술을 하는 장들보다 먼저 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신앙고백에서는 이중 예정, 즉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은 구원으로, 어떤 이들은 멸망으로 예정하셨음을 8개항에 걸쳐서 자상하게 진술 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16세기 말부터 만연하기 시작한 아르미안 주의를 의식한 데서 오는 것이다. 특히 화란에서는 이즈음부터 신학과 신앙에서 이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일어났다.⁶⁵⁾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제3장부터 예정론을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신학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고백서는 균형을 위하여 잘 배열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예정을 하셨다

64) 이형기, 326.

65) 김영재, 164.

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그러나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설교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예정부터 설교를 한다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진다.⁶⁶⁾

예정에 관한 논의는 멀리는 어거스틴에게서 그리고 가깝게는 칼빈에게서 온 것이지만, 칼빈의 기독교강요에는 예정론을 제 3권 제21장에, 즉 구원론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성경 가운데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가장 체계 있게 가르치는 로마서의 구성과도 같다.⁶⁷⁾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로마서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이중예정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교리가 어떤 사람들의 논쟁처럼 성경에 없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에서 바울은 로마서 9장-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절대주권으로 하심을 변증하면서 논증하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지 선포하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⁶⁸⁾ 예정론을 신론에서 다루는 것은 결국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이상으로 추론하여 체계화하며 강조한 것으로 사변적인 정통주의 시대의 신학자들의 신학체계를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도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예정론도 신론을 다루는 부분에서 설명을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성경에 관한 문답(제1문-제11문)을 한 후 제12문부터 제14문까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문답을 한다. 그리고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론에 대해서 문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정론을 먼저 말하고 구원론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이런 순서 역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체계와 같음을 볼 수가 있다.

소요리문답에서도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문답을 한 후 7문과 8문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묻고 답을 한다. 그리고 9문부터 창조와 타락과 죄, 그리

66) 김영재, 165.

67) 김영재, 165.

68) 김영재, 165-166.

고 구원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고백을 한다. 소요리문답에서의 예정론의 위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요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에서도 예정론을 다른 어떤 교리나 십계명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는 것 보다 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 있다.

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어서 예정론의 특징 : 타락전 예정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타락전 선택설을 말하고 있다. 이형기는 장2항에 있는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을 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다”는 구절을 인용하여 타락 후 예정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⁶⁹⁾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타락 전 예정을 지지하는 것이 훨씬 많이 있다. 첫째는 본 신앙고백의 체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제3장) 먼저 나오고 창조(제4장), 섭리(제5장), 타락(제6장), 하나님과의 계약(제7장)이 나온다. 그러므로 신앙고백의 체계를 통해서도 타락전 예정을 말한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에서도 분명히 타락전 예정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하는 제3장의 많은 곳에서 타락전 예정을 지지 하는 곳이 많이 있다. 5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목적과 그 마음의 은밀한 계획과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셨다. 이렇게 결정하실 때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신 것이요, 어떤 선견된 신앙이나 선행, 오래 참는 일,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것이나 어떤 조건, 혹은 하나님을 그렇게 하도록 움직인 원인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⁷⁰⁾

69) 이형기, 309.

70) *W C F.*, 3.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유의지 문제에서 도르트 신조와는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는 곳이다. 도르트 신조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자유의지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제2의 원인들의 자유와 우연성이 결코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확보되고 확립하는 것이다”⁷¹⁾라고 하였다. 자유의지가 일부 남아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도르트 신조와는 미세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발견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이 개인의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는 목회현장에서는 오히려 유용하게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오는 예정론의 이런 내용들이 웨스트민스터의 기독교론과 구원론을 이끌어 가는 핵심개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신앙고백에서는 예정과 섭리의 조항 뿐 아니라 구원론을 말하는 조항에서도 예정과 선택의 사상이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믿음과 구원의 도리를 말하면서 언제나 ‘선택된 자’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다. 실패 있는 부르심에 관하여 논하는 제 10장 제 4항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 관하여 길게 서술한다.⁷²⁾ 그러므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어느 고백보다 예정론을 강조하고 있고 예정론에 근거하여 구원의 교리를 전개하였다.

먼저 본 신앙고백에 나오는 예정론의 중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2장의 2항 중에서 예정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어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는 만물 위에 지극히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시고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시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⁷³⁾라고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분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71) *W C F.*, 3.1.

72) 김영재, 168.

73) *W C F.*, 2.2.

제3장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에서는 예정론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한 자기 뜻에 따라 되어갈 일을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또는 변할 수 없게 정하셨다. 그러나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로 되지도 않으시고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심도 없으며, 제이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지도 않고 도리어 확립되게 하셨다.⁷⁴⁾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정의 조성자가 되시고, 예정의 시기는 영원전부터이며, 이 하나님의 예정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제2항은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듯 한 혹은 일어날 일을 무엇이든지 아시지만 장래 일로, 혹은 일어날 것을 선견하신 때문에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⁷⁵⁾라고 한다. 이것은 아르미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미리 아시고 예정을 하였다는 예지예정설을 반박하는 것이고, 타락 전 예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3항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의 작정으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작정하셨다.”⁷⁶⁾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예정을 하셨다고 하였다. 그리고 영생과 영원한 죽음의 이중 예정을 말하고 있다.

제4항은 “이렇게 예정되고 먼저 정해진 이들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 또는 불변적으로 계획되어진 것이니, 그들의 수는 극히 확실하고 한정되어서 더 해질 수도 감해 질 수도 없다.”⁷⁷⁾고 말 한다. 이것은 예정된 사람의 수가 제한이 되었다고 하

74) *W C F.*, 3.1.

75) *W C F.*, 3.2.

76) *W C F.*, 3.3.

77) *W C F.*, 3.4.

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의 하나인 제한 속죄를 말하고 있다.

제5항은 타락 전 예정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을 말하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 한다.

6항에서는 “그러므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았고, 때가 되어 그리스도 영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도록 유효적으로 부름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양자됨을 얻고 성화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말하고 있으며 또 예정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소명 칭의 양자 성화 보다 앞에 됨으로서 구원론에서도 예정의 위치가 칼빈과는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형기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을 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므로 타락후 예정설에 가깝다고 한다.⁷⁸⁾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강조하는 것이지, 선택의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는다.”라고 함으로써 성도의 견인 즉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다. 또한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지 못하고 유효적으로 부름을 받지 못하고 칭의, 양자, 성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함으로써 제한 속죄를 말하고 있다.

7항에서는 “하나님은 공흠을 베푸시든지, 앗으시든지, 기뻐하시는 대로 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뜻에 따라 그의 피조물들 위에 나타나는 주권적 권세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 하신다”⁷⁹⁾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정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고 한다. 또 “하나님은 택함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냥 버리시거나 수욕과 진노를 당하게 정하시어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케 하기를 기뻐하셨다”⁸⁰⁾고 한다. 그래서 이중 예정 중에서 유기를 분명히 말

78) 이형기, 309.

79) *W C F.*, 3.7.

80) *W C F.*, 3.7

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권능으로 구원 받을 자를 선택하신 것만 아니라, 영원히 버림을 받고 진노를 받을 자들도 택하신 것이다.

8항에서는 우리가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한다. “높고 신비한 예정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⁸¹⁾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정론의 유익을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여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유효한 부름을 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게 하여야 한다.”⁸²⁾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예정교리의 유익에 대해서는 “그리하면 이 교리는 하나님께 향한 찬송과 경외심과 경모심을 일으키게 하며 또는 겸손한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진실히 복음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주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와 같은 예정론의 내용에 근거하여 기독교론과 구원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6장 5항에서는 사람이 타락과 형벌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오심의 근거도 결국에는 선택한 자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한 것이다. 제7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람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된 은혜의 언약의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스스로 그 언약에 의해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주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은혜 계약이라 칭하는 둘째 언약을 맺으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 하셔서 그들이 구원 얻기 위해 그를 믿을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믿기를 원할 뿐 아니라 믿을 수 있게 하기를 약속 하였다.⁸³⁾

81) *W C F.*, 3.8.

82) *W C F.*, 3.8.

83) *W C F.*, 7.3.

그러므로 이런 은혜 언약을 주신 이유는 곧 하나님의 예정 때문임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은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을 구원 하시려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지고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택한 자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8장에서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정하신 뜻을 따라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중보, 선지자, 제사장, 왕 또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물의 후사 와 세계의 심판주로 택하시고 임명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영원 전부터 한 백성을 그의 씨가 되게 하였고 때가 되매 그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칭의 되고 영화되게 하셨다.⁸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예정에 근거한 것이다.

효력있는 부르심도(제10장)도 그 근거를 하나님의 예정에 두고 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만을 그가 정하시고 기뻐하신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본래의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이 이르도록 효력 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⁸⁵⁾고 하였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반드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력있는 부르심에 되게 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유아 시에 죽은 자의 구원의 근거로 예정론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 “택함을 받

84) *W C F.*, 8.1.

85) *W C F.*, 10.1.

은 어린이들은 어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때와 곳과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중생되고 구원을 얻는다. 말씀의 전파를 통하여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었던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도 이 어린이의 경우와 동일하다”⁸⁶⁾고 함으로써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도 선택을 받은 사람은 유아 때 죽은 어린아이처럼 예정교리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

제11장에서는 칭의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칭의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 해 주시는 것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칭의의 근거도 역시 하나님의 예정에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효력있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부터 모든 택함을 받은 자들을 의롭다 하기를 작정하셨고, 그리스도는 때가 차 때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나 성령이 적당한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믿게 하시기까지는 그들은 의롭게 될 수 없다.”⁸⁷⁾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며,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으로 예정한자의 모든 구원의 과정과 성화의 과정을 이 끌어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양자가 되는 것(제12장)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⁸⁸⁾. 성도가 성화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효력있는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자들 곧 그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과 그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실제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⁸⁹⁾라고 하였다. 제14장의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서도 결

86) *W C F.*, 10.3.

87) *W C F.*, 11.4.

88) *W C F.*, 12.

89) *W C F.*, 13.1.

국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게 된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다”⁹⁰⁾고 하였다. 구원을 얻은 성도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그 죄로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러한 궁극적인 구원을 주신다(제17장).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까지 인도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이유도 역시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성령으로 효력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부터 전적이거나 최종적으로 타락 할 수 없고 끝까지 확실히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 자신들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예정의 불변성에 의한 것이다. ⁹¹⁾

하나님의 예정이 이렇게 성도의 견인까지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뿐 만 아니라 성도의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그 원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1장에서 제18장까지에서 하나님의 예정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종국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믿는 자에게 확신에 거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구원의 교리를 자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점은 뛰어나지만, 언제나 예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사변적으로 기울어지는 점을 이따금 발견 할 수 있다.

1903년에 미국 북 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시금 수정하여 채택하였다. 신앙고백서 가운데 생활에 관

90) *W C F.*, 14.1.

91) *W C F.*, 17.1-2.

한 3개 조항을 수정하고, 성령과 선교에 관한 조항을 첨가였다. 그 때에 교리에 관한 조항은 수정하지 않고 보다 적절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10장 3항의 죽은 유아의 구원에 관한 조항을 설명함과 동시에 제 3장 예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함으로써 정통주의 시대의 산물인 소위 극단적인 예정론의 입장을 수정하였다.⁹²⁾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영원한 결정의 교리는 모든 인류에 대한 그의 사랑과 조화되게, 전 세계의 죄를 대속하도록 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조화되게,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의 호의와 조화되게 주장되어야 한다.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의 교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의 도움도 원하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충족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게, 그리고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실 구원을 준비하신 것과 조화되게 주장되어야 한다. 또 하나님의 결정이 이 구원을 준비하신 것과 받아들이려는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으며, 또 아무도 자기의 죄 때문인가 아니고서는 정죄되지 않는다는 것과 조화되게 주장되어야 한다.⁹³⁾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서의 예정론은 12, 13, 14문에 언급되어있다. 12문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답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의 도모로 말미암은 지혜롭고 자유하며 거룩한 행위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위하여 특히 천사와 사람에게 대하여 무엇이 일어날 일을 변할 수 없게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작정은 하나님의 의지와 지혜로 되어진 것으로 그 대상은 천사와 사람에게 대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예정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말한다.

92) 김영재, 167.

93) 김영재, 167.

13문의 질문과 답은 다음과 같다.

문.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특별히 걱정하셨는가?

답.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 영원 가운데 불변한 걱정으로 말미암아 때가 차면 나타날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케 하시려고 어떤 천사들을 택하시어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어 영생과 그것을 얻는 방법을 주셨다. 또한 그의 주권과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뜻(그것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대로 은총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에 따라 자기의 공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나머지는 사람들을 버려두시고 치욕과 진노아래 그들의 죄 값으로 벌을 받게 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불변한 것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영생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영벌에 두기로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14문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작정을 이루시는가?”라고 묻는다. 답은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적으로 확실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할 수 없는 뜻에 따라 창조와 섭리의 일로 작정을 이루신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절대적인 예지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다. 제66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묻고 답을 하고 있고, 제68문에서는 선택을 받은 자만이 유효한 부르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묻고 대답을 하고 있다.

소요리문답에서는 제7문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답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하신 바에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난 모든 일을 미리 정해 두셨다”이다. 또 제8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작정을 어떻게 시행하시는가?”라고 묻고 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통해 자기의 작정을 이루신다.”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므로 소요리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예정의 대상, 이중예정 등에 관한 구체

적인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⁹⁴⁾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문답으로 어려운 주제들은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제21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인가?”라고 묻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시며”라고 대답을 한다. 그래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임을 확실하게 고백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94) 김의환 편저, 146.

Ⅲ. 개혁주의 신조에 나타난 예정론에 대한 평가

A. 칼빈의 예정론과 비교하여

1. 칼빈의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은 칼빈의 중심교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이 교리를 성경적으로 체계화함으로서 그의 신학 체계에 예정교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⁹⁵⁾ 많은 개혁신학자 사이에서도 예정교리는 “칼빈주의 신앙고백서들 중에서도 중간적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일반적으로 예정교리를 칼빈주의 기본 원리나 출발점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교리는 칼빈주의 체계와 모든 참된 칼빈주의 자들의 도달점이요 필연적 가설”⁹⁶⁾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정에 관한 주제에 있어서 루터는 칼빈보다 더 많은 기록을 남겼고 칼빈의 기독교강요에서 예정을 다룬 부분은 다른 교리에 비하여 아주 빈약하다. 칼빈은 예정에 관한 부분에 치중하기보다는 이중정의 교리에 대한 공격을 방어 할 목적으로, 예정에 관한 몇 가지 특별한 논문을 저술 하였는데 칼빈은 먼저,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논박의 필요성으로부터 예정을 다루었고, 그 중에 주목할만한 것은 제롬 볼세크를 반박하여 1551년에 저술한 ‘영원한 예정에 관한 논의’, 1552년에 피기우스에 반대하여 쓴 두 번째 저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관하여’가 있다.⁹⁷⁾

어거스틴 이후부터 칼빈까지는 예정론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엄격한 예정의 교리가 주장 되었다. 멜란히톤도 초기에는 그랬다. 루터의 경우도 그의 후년에는 예정의 신앙이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절대적 예정의 교리는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들 모두 아직까지 반펠라기안파의 입장을

95) Fred. H. Klooster, **칼빈주의 예정론**, 신복윤 역 (서울 : 성광 문화사, 1994), 19.

96) H. Henry Meeter, **칼빈주의의 근본 원리**, 신복윤 역 (서울 : 성광 문화사, 1990), 63.

97) H. Henry Meeter, 99.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 것을 보게 된다.⁹⁸⁾ 칼빈은 어거스틴의 절대 이중적 교리를 굳게 믿고 주장을 하였다. 동시에 피기우스(Pighius)에 대해 교리를 변호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 온 것에 관한 작정은 허용적인 작정이었으며 또한 유기의 작정은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되거나 결코 그것을 책임 지지 않는다고 해석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⁹⁹⁾

그러므로 우리는 칼빈의 성경적 예정론의 분명하고 명확한 내용들을 다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1552년 피기우스(Albert Pighius, 1490-1542)와의 논쟁을 통해서 제시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하여’를 작성하면서 예정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여기서 그는 피기우스의 ‘자유의지에 대하여’란 논고를 논박하면서 피기우스가 중세 반(半)펠라기안파의 입장을 다시 교회 안에 들여놓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칼빈은 피기우스의 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는 은혜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들의 자유이다. 누가 선택되고 누가 버림받느냐 하는 것의 신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자기의 의지 여하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밖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인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지 각 사람의 개인적 의지에 의하여 이 같은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¹⁰⁰⁾

칼빈은 이런 피기우스의 논고에 대해서 “광기와 철면피 얼굴을 겸한 사나이 간벤의 아들 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확립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정하신바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지를 전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¹⁰¹⁾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입장을 논박하

98) Louis Berkhof, **벌름 조직신학 상**,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 문화사, 1999), 341-2.

99) Louis Berkhof, 342.

100) John Calvin,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관하여** (존 칼빈의 신학논문), 김진수·김기수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1), 315.

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칼빈은 피기우스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 중요한 일인지는 “피기우스는 내 이름을 들어서 공격하였으며 또한 내 사타구니를 통해서 경건하고 건전한 교리를 찌르고 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의 모독적 광기를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다”¹⁰²⁾라는 말에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예정론을 침묵하거나 또는 이 교리에 위협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부인하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를 날카롭게 다음과 같이 지적해 주고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칼빈이 이 예정론을 바르게 교회 가운데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인식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당시 교회를 세우는 기초로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폐해를 없애려는 생각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정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않는다. 암초를 피하듯이, 그들은 이 문제를 피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 그러나 성경에서 예정에 대해서 밝힌 것을 신자들에게서 빼앗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들에게서 빼앗는 악한 자로 보일 수 있으며 알리지 않았어야 좋을 것을 공표 했다고 성령을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로 우리는 보여 지게 될 것이다.

불경한 사람들은 예정에 관해서 갑자기 어떤 점을 붙잡고 비난하며 욕하며 떠들어대며 조롱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 그들은 이 예정론 논의가 경건한 사람들에게 위험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충고를 방해하며, 믿음을 흔들며 속마음을 어지럽게 하며 공포심을 불어넣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무의미한 말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어거스틴도 예정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한다는 비난을 자주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그런 비난을 여지없이 반

101) John Calvin, 315.

102) John Calvin, 314.

박했다. --- 다만 내가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정하기를 바라는 점은 이것이다. 즉 우리는 주께서 비밀로 그대로 두신 것은 탐색해서는 안 되는 동시에, 공개하신 것은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약한 영혼들을 어지럽게 할까 해서 조심하기 때문에 또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정을 아주 물어 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어리석고 사려가 없다고 비난하는 그 교만을 어떤 애매한 구실로 덮을 것인가? 그들의 태도는 마치 자기들이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느끼는 그 위험성을 하나님께서 예견하시지 못했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예정의 교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에 해로운 일을 지각없이 누설하셨다는 듯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이다.¹⁰³⁾

이처럼 칼빈은 성도들에게 예정론을 이해 할 수 없고 또 어려운 교리라고 하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으로 생각을 하였다. 그러므로 예정론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고 과도하게 설교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칼빈은 예정론이 성도의 전체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충분히 또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한다. 영원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절하신다는 이 대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명백하게 드러낸다. 이 원칙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켰으며, 진정한 겸손을 얼마나 감소시켰는가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¹⁰⁴⁾

칼빈은 1536년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썼고, 1559년에 최종판을 완성하였는데¹⁰⁵⁾,

103) *Inst.*, 3.21.3-4.

104) *Inst.*, 3.21.1.

105)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258.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참되고 순수한 지식을 위하여 기독교 강요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예정론을 자신의 신학의 바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목회상의 선입견에 이끌려 그렇게 한 것이다.¹⁰⁶⁾ 이런 칼빈의 예정론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경험적 사실과 성서의 고지에 함께 자극 받은 단순한 주장이었다. 그런데 의외로 이에 대한 그릇된 사상과 반대가 폭주하여 왔기 문에 길게 논구되고 발전되고 명확히 되어서 칼빈 특유의 교리 형태까지 형성”¹⁰⁷⁾되었다. 특히 칼빈의 예정론이 그의 성서의 연구의 결과로 더욱 발전 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기독교강요 초판(1536)에서 예정론이 독립된 항목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던 예정론이 최종판(1559)에서는 구체적인 항목과 설명으로써 제시되고 있는 데에 있다. 초판에서는 예정론을 교회에 관하여 말할 때에 ‘선택 받은 자의 무리’라는 말과 연관 지어 서술을 하였고, 그 외에 공로사상의 부정, 구원의 확실성, 하나님의 영광 등을 말할 때에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였을 뿐이다. 제2판(1539)에서는 전17장 중에서 제8장에 독립된 장으로 취급을 하였다. 그러다가 최종판에 가서 비로소 제3권 성령론 속의 제21장부터 제24장까지 예정론을 다루게 된다.¹⁰⁸⁾ 이것을 볼지라도 칼빈의 예정론은 성경을 연구 해 감에 따라서 예정론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칼빈은 예정교리를 창안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예정교리를 가르친 최초의 사람도 아니었다. 그러나 칼빈의 이름이 이 교리와 연관되어, 마치 칼빈이 만든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칼빈이 나름대로 이 예정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만들었으며, 이 교리에 대하여 변호하는 과정을 통해서 칼빈의 교리로 인식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정의 교리가 칼빈 신학의 중심교리이며 논리적 연역에 의해 그의 전체 신학 체계를 조직화한 기본원리라는 주장은 정당한 근거가 없다”¹⁰⁹⁾라고 클로스터는 말

106) Donald K. McKim, **칼빈신학의 이해**, 이종태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210.

107)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경기도: 대한기독교서회, 1992), 159

108) 황재범, “칼빈의 예정론 이해”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1986), 12. 재인용

109) Fred. H. Klooster, 17.

하였다. 그리고 1542년 나온 칼빈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제네바신조에서도 특별하게 다루지 않았다.¹¹⁰⁾

따라서 칼빈은 그의 신학에서 예정론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즉,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예정론을 하나님의 섭리에서 출발하지 않고 구원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칼빈은 이 예정의 교리를 다루게 된 첫 번째 동기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초청을 하지만 불신에 의해서 눈멀고 귀먹은 대부분의 사람들은(마22:14) 그런 탁월한 은혜를 무시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절절하게 설명하기 위한 작업이 예정론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¹¹¹⁾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을 다룬 것은 도르트 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는 그 동기가 다르다. 도르트 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예정을 반대하는 아르미안주의와의 논쟁 등이 있었으므로, 그 시대의 사정이 예정론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을 다룬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은혜의 교리인 예정의 교리를 소개 한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신학 사상의 모든 근거는 성경이다. 그러므로 예정론에 있어서도 그 근거와 배경은 성경인 것이다.¹¹²⁾ 이것은 칼빈이 구원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 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 자신의 구원의 경험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예정에 대한 많은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에서 구원에 대하여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정론에 대해 말하고 있다. 베트너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전개함에

110) Wilhelm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trans. Harold Knigh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166.

111) I. John Hesselink, *Calvin's First Catechism*,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94.

112) Niesel, 162.

있어서 첫 부분에서 예정론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유의할 만 한 일이다. 그는 먼저 기독교 체계의 다른 교리들만 전개시켰고 심지어 당연히 이 교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일곱 군데서조차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갔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야 이 교리를 충분히 전개시킴으로 그 전체의 최후를 영광스럽게 장식하였다”¹¹³⁾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의 예정론에 대한 이런 체계는 칼빈신학에서의 중심사상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와 일치하는 것이다.

2. 초기개혁주의 신조에 나타난 칼빈의 예정론의 중요교리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예정론 가운데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점이 되었던 중요교리를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중예정, 예지(foresight), 타락전 예정(supralapsarian) 혹은 타락후 예정(infralapsarian),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자유의지에 관한 것이다.¹¹⁴⁾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런 것들이 벨직 신조와 도르트 신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비교하면서 예정론이 개혁주의 교회 역사 안에서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살펴보고 한다.

기독교강요에서는 이중예정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예정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생명의 희망으로 받아드리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선고 하신다”¹¹⁵⁾라고 하였다. 이중예정에 대하여 벨직 신조(1561년))에서는 제16장 영원한 선택을 말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을 말하면서 이중예정을 말하는데 “자비롭다함은-중략-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 파멸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보존하기 때문이요, 공의롭다함은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타락과 파멸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심에 있다”¹¹⁶⁾라고 하였다. 도르트 신조(1618

113) 김기형, 40. 재인용.

114) 이승학, 5.

115) *Inst.*, 3. 21. 5.

년))에서는 칼빈주의 5대 원칙을 고백하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교리인 기록한 예정을 설명하면서 이중예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8년)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를 설명하면서 이중예정을 고백하고 있다. 3조에서는 사람과 천사를 이중예정을 하였다고 한다.

6조에서는 오직 택함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며, 7조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수욕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권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예지에 대해서 칼빈은 “선택은 공로에 대한 예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에서 온다.”¹¹⁷⁾라고 말 하였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앙은 예지예정을 반대한다. 예지 문제에 대해서는 벨직 신조에서는 고백을 하지 않고 있다. 도르트 신조에서는 첫째교리 제9장에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예지에 대해서 인간의 선행이나 예지적인 믿음, 순종, 기록함, 착한 성품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을 받아서 믿음에 이르고 기록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선택의 근거는 예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제3장 2항에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을 무엇이든지 아시지만, 그러나 이것을 선견하심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타락전 예정은 하나님이 개개인의 운명을 작정하는데 있어서 창조와 함께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다. 타락후 예정은 창조 후 사람이 범죄 하므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의 체계상으로 볼 때 타락후 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이 엡1:4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택자를 창세전에 선택을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학자들은 칼빈은

116) 김의환 편저, 187.

117) *Inst.*, 3.22.1-6.

타락전 예정설을 말했다고 한다. 타락전 혹은 타락후 예정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이것은 예정이 영원 속에서 타락 전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 후에 일어났는지에 관한 논쟁인데, 그 순서는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것이다. 학자들 중에서 다우이(E. A. Dowey)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칼빈의 관점이 타락 전 예정론적일지라도, 예정론은 칼빈의 체계에서 구속론의 일부분으로 나타난다.”¹¹⁸⁾고 함으로 칼빈이 타락전 예정을 말한다고 하였다. 벨코프도 칼빈이 인간의 최초범죄자가 예정되었다고 본다는 점에서 타락전 예정자라고 생각한다.¹¹⁹⁾ 그러나 하지는 예정의 대상이 타락한 인간들이라는 기준으로 칼빈을 타락 후 예정론자라고 하였다.¹²⁰⁾ 칼빈이 기독교 강요의 순서에서 하나님의 예정 보다 타락을 먼저 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타락후 예정을 말했다고 볼 수 있다.

타락전 혹은 타락후 예정론에 대해서 벨직 신조에서는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벨직 신조의 체계의 순서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이전에 타락과 원죄를 둔 것으로 보아 타락후 예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도르트 신조에서는 타락전 예정을 고백하고 있다. 도르트 신조의 핵심개념은 예정론으로 절대자 하나님의 주권적 시역이다. 그러므로 예정론이 도르트 신조의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다. 적어도 체계적으로 볼 때 도르트 신조는 타락전 예정론을 말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타락 전 예정을 고백하고 있다. 제3장 5항에서 “영생으로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계의 기초를 놓기 전에 영원하고 불변하신 목적에 따라 선택을 하였다”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에 대해서 칼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은 그들 자체로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엡1:4)”라고 하였다. 칼빈은 이중 예정에 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게 취급을 하였다. 그러나 비록 많이 다루지는 못 하였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

118) E. A.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New York: 1994), 186.

119) Louis Berkhof, 352.

120) 김종희, “칼빈의 삼위일체적 예정론”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0), 5.

의 선택은 칼빈의 신학의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심 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에 대해서 벨직 신조,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다 같이 고백을 하고 있다. 벨직 신조 제16장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선택을 하시고 보존을 하신다고 하였다. 도르트 신조는 첫째 교리 제7조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선택하신 어느 수를, 그들이 비록 타락 하였어도 사람의 중보자시며 머리며 구원의 토대가 되도록 영원부터 임명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였다고 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3장 5항에서 “영생으로 예정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을 하였다”라고 하였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칼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보호 하에 선택된 자들의 견인은 확실하다.”¹²¹⁾ 또 그리스도께서 그를 아는 지식을 비추시고 교회의 품에 안겨준 사람들 돌보시고 영생을 얻도록 보호하신다고 하였다.¹²²⁾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인용하는 구절로는 요한복음 6장37절, 39절, 44-45절이 있다.¹²³⁾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벨직 신조는 고백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도르트 신조에서는 다섯째 교리 성도의 견인의 제1장에서 제15장까지로 많은 내용을 고백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까지 강력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보존을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탄식 할 만큼 타락을 하여도 자기 백성으로부터 성령을 아주 거두어 가지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상실하여 의인의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

121) *Inst.*, 3.24.6-11.

122) *Inst.*, 3.24.6.

123) (요 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 6: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요 6:44-45)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양고백에서는 제17장의 1-3항에서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 설명을 한다.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 있는 부르심이다. 그러므로 종국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 갈 수 없고,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 또 성도의 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재의 효과와 성령,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의 내재, 은혜 계약의 성질에 의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은 성도들이 사탄과 세상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부패해지면 현세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초래한다고 한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칼빈은 어그스틴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인간에게 의지가 자유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해방되지는 않았다. 곧 의로 부터는 자유하나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였다.¹²⁴⁾ 어그스틴은 자유의지란 이성과 의지의 기능으로서 은혜의 도움을 받을 때는 선을 택하고 은혜가 없을 때는 악을 택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¹²⁵⁾ 인간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자신도 잃고 자기의 의지도 잃고 말았으며 자유의지는 노예로 포로 당하였으므로 의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할 힘도 없다고 하였다.¹²⁶⁾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벨직 신조,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이 다같이 고백을 하고 있다. 벨직 신조에서는 제14장에서 고백을 하는데, 사람은 죄 때문에 자기의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으며, 본성이 전부 부패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가르치는 모든 교훈을 배격한다. 사람은 죄의 노예에 지나지 않으므로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였다. 도르트 신조에서는 셋째 교리와 넷째 교리의 제1장, 제3장, 제16장에서는 자유의지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의 지식과 영적인 일들을 추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자유의지를 남용을 하였다. 자연히 인간은 죄 가운데서

124) *Inst.*, 2.2.8.

125) *Inst.*, 2.2.4.

126) *Inst.*, 2.2.8.

잉태되며, 진노의 자식이 되었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 할 수 없으며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한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기를 타락으로부터 회복을 시킬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9장에서는 자유 의지에 대하여 설명을 살펴볼 수 있다. 하나님은 맨 처음에 사람의 의지에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선악이 강요되지 않았다. 이때는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졌으며, 또 그 상태에서 변하여 타락 할 수 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은 죄로 타락을 하여 자신을 구원 할 수 있는 영적 선을 행 할 수 있는 의지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영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지력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2의 원인들의 자유와 우연성이 결코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조금은 남아있다고 한 것도 사실이다.

B. 후기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예정론과 비교

1. 하지

찰스 하지¹²⁷⁾는 그의 조직신학에서 예정론의 위치를 구원론에 두고 있다. 그의 조직 신학 1권에서는 신론을 2권에서는 인간론과 구원론, 3권에서 구원론의 일부와 종말론에 대해서 썼다. 하지는 예정론을 구원론에서 말함으로 웨스트민스터의 체계를 따르지 않고 칼빈의 체계를 따른 것을 볼 수가 있다. 그의 조직신학 2권에 나오는 구원론에 대한 항목 가운데서 첫 번째 항목이 구원의 계획인데 여기에서 예정

127) 찰스 하지 (Charles Hodge, 1797-1878)는 19세기 미국 칼빈주의 신학자이다.

그는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서 1815년에 프린스턴 대학을, 1819년에 동 신학원을 졸업하였다. 2년간 프랑스와 독일에서 공부하였고, 1822년부터 1878년까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교수를 역임하였다. 그의 신학은 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신학이었고, 스콜라적 칼빈주의, 특히 투레틴(Turretin)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하지의 사상은 성경의 축자영감과 무오성을 존중하는 시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정통 칼빈주의가 미국의 사상계일반에서 쇠퇴하고 진화론적 사상이 세력을 떨치기 시작하고 있을 때 하지는 초자연적으로 영감된 성경을 확고하게 옹호하였고, 그에 의하여 ‘프린스턴 신학’이라는 명칭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두 번째 항목은 은혜의 계약이고 세 번째부터 열 세 번째 항목까지는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므로 하지는 구원론 중에서도 예정론을 첫 번째 위치에 두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지의 예정론의 위치는 칼빈의 기독교강요보다는 벨직 신조와 같은 체계를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으로 선택한 자를 구원 하시는 것은 이미 창세전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 수 가 있다. 칼빈과 벨직 신조에서 타락후 예정을 말하는 것처럼 하지도 타락후 예정을 말한다. 하지는 타락전 예정론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에 제시된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의 특성과는 일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비참과 영원한 죽음으로 미리 정해 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만약에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간파되고 죽음으로 미리 정해진다면 예정론이 사람을 죄와 타락의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¹²⁸⁾ 또 타락후 예정설을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더욱 인정 할 만 하다고 하였다.¹²⁹⁾ 그러므로 하지는 타락후 예정론의 입장을 가지며 예정론의 위치에서는 칼빈과 벨직 신조를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워필드

벤자민 B. 워필드 박사¹³⁰⁾는 현대 3대칼빈주의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예정론에 대한 워필드의 생각은 그의 저서 ‘구원의 계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구원의 계획은 다른 말로하면 ‘작정의 순서’라고 하였다.¹³¹⁾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

128) Charlse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2*,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3), 319.

129) Charlse Hodge, 320.

130) 벤자민 워필드(Benjamin B. Warfield)는 세계적인 신학자로서, 1921년 2월 16일 작고 하기까지 약 34년 동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의 저서에는 「성경의 영감과 권위」, 「구원의 계획」 등이 있다.

131) Benjamin B. Warfield, *구원의 계획*, 모수환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터, 1996), 9

서 자연주의자와 초자연주의자가 있다. 그는 초자연주의자는 사제주의자와 복음주의자이며, 복음주의자들은 보편구원론자이거나 제한구원론자이다. 제한구원론자들은 모든 사역에서의 철저제한구원론자이거나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관련하여 단지 일부만 제한구원자이다. 철저제한 구원론자들 중에서도 타락전 선택설과 타락후 선택설이 있음을 말 하였다.¹³²⁾ 타락전 선택설의 작정의 순서는 하나님의 영생으로 일부가 선택됨, 타락의 허용, 택자를 구속하고 모든 자들에게 초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선물함, 구속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을 선물함, 구속받고 중생한 모든 자의 성화이다. 타락후 선택설의 작정의 순서는 타락의 허용,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을 일부를 선택, 그리스도의 택자를 구속하고 모든 사람에게 초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선물함, 구속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을 선물함, 구속받고 중생한 모든 자의 성화이다.¹³³⁾ 워필드는 이렇게 예정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작정의 순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워필드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사역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를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역의 증거라고 한다. 그러므로 “참으로 칼빈주의 자에게 있어서 예정론의 구원론적인 의미는 일원론적인 중생, 곧 순수한 초자연적 구원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에 있는 것이다.”¹³⁴⁾라고 말 하였다. 그러므로 워필드에게 있어서 예정론은 구원론적인 설명과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신론적인 내용으로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예정론의 위치에 대한 워필드의 이런 모습은 칼빈 뿐만 아니라 후기 개혁주의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적인 내용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2) Benjamin B. Warfield, 22.

133) Benjamin B. Warfield, 25.

134) Benjamin B. Warfield, 124.

3. 별코프

루이스 별코프¹³⁵⁾는 그의 조직신학에서 예정론을 신론에서 논하고 있다. 신론의 제1편에서는 하나님의 실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제2편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별코프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면서 두 번째로 예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별코프는 예정에 있어서 주체(창시자는)는 삼위일체 안에 계신 세 인격들의 일차적(concurrent)인 행동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주권적 행동은 성부에 의해 돌려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성적인 피조물에 관계를 하고 있는데 매우 빈번하게 타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언급을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사람들과 천사들의 예정의 차이점은, 사람의 예정은 타락 후에 선택된 것(infralapsarian)이지만 천사들의 예정은 타락 전에 예정된 것(supralapsarian)이라고 하였고¹³⁶⁾ 또 “우리의 표준적인 신앙고백서들은 후택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전택설을 정죄하지 않는다.”¹³⁷⁾ 말 하였다. 별코프는 타락후 예정을 말하고 있다. 예정은 선택과 유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그의 신적인 기쁨심의 표현이다. 선택의 작정은 불변적이며, 따라서 선택의 구원을 확실하게 만든다. 선택의 작정은 영원부터이며,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불공평한 것으로 비난 할 수 없다. 선택의 목적은 이중적인데 근사적인 목적은 선택자의 구원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였다.¹³⁸⁾

별코프는 후택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예정론의 위치에 대해서는 칼빈과 벨직 신조와는 다르고, 개혁주의 신조들 중에서는 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처럼 신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135) 루이스 별코프는 네들란드 엠멘(Emmen)에서 출생하여 8세에 미국으로 이민, 그랜드 래피즈에 정착하였다. 칼빈신학교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수학, 네들란드 계통의 개혁파 신학자들(Kuyper, Bavinck, Vos, Beuker)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여러 목회지에서 사역을 하였고, 주로 칼빈신학교에서 주경신학과 조직신학등을 가르쳤으며 오랫동안 칼빈신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1944년 은퇴이후에도 많은 책을 발간하였으며, 1957년 83세로 작고하였다.

136) Louis Berkhof, 345-346.

137) Louis Berkhof, 360.

138) Louis Berkhof, 345-348.

4. 박형룡

박형룡은 예정론을 그의 교의신학 제2권인 신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는 제1편에서 하나님이 실유를 제2편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박형룡은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박형룡의 교의신학의 내용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정론에서도 벌코프의 예정론의 내용을 거의 답습을 하고 있다. 박형룡은 특히 예정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에 예정론은 성경이 가르치는 다른 어느 교리보다도 더 심하게 참조되고 또한 오해와 조소를 받아 온다.”¹³⁹⁾라고 하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 교리가 가르치는 성경적 교훈이 결핍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A. A. Hodge의 “신신학은 구신학이 편협하다고 주장하여 여호와의 예정을 현대의 진보된 문화의 불신심을 받게 된 스콜라 학도의 쓰다가 낡아진 허구물이라고 이를 배격하고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예정론은 성경이 경멸되는 기독교 사상적 혼란 중에 수난 당하고 있으나 전혀 칼빈주의적인 것이라¹⁴⁰⁾고 하였다. 박형룡의 예정론 칼빈처럼 구원론에서 설명을 하지 않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신론에 그 위치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C. 한국교회에서의 예정론

1. 12신조와 한국교회의 신앙고백에 나타난 예정론

12신조는 한국교회가 최초로 채택한 신앙고백이다. 1907년 9월 17일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네 장로교회의 선교회 대표가 모체가 되어 대한민국 예수교 장로회(독

139) 박형룡, **박형룡저작전집 제2권: 교의신학 신론**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원, 1988), 275.

140) 박형룡, 275-276.

노회)가 조직이 되었다.¹⁴¹⁾ 이 때 12신조를 한국 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채택을 하였다. 12신조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을 발췌 요약한 것으로 보이나 1890년 작성 채택된 영국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도 참작하여 만든 것이다.¹⁴²⁾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12신조에서 예정을 말하면서 이중 예정론과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에 대한 고백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12신조 중에서 예정론이 있는 9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9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사 사랑하므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두렵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로 되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하여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지라. 저희가 받은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養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수(數)에 참여하게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 줄로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지라.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에 은혜 배 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¹⁴³⁾

이것은 미국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임의로 수정한 것의 경향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⁴⁴⁾ 미국 북장로회가 1903년 개정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제10장 3항에서 죽은 유아의 구원에 관한 조항을 수정함과 동시에 제3장 ‘예정에 관하여’를 정통주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하여 수정하였다. 수정을 하게 된 동기 중 중요한 것은 18세기부터 일어난 부흥운동에 장로교회가 미온적이거나 냉담한 태도

141) 이승학, 79.

142) 김영재, 208.

143) 헌법,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 1995), 21.

144) 김영재, 208.

를 취하였다는 점을 반성 한데서였다. 19세기 와서는 장로교회가 부흥 운동과 선교 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하면서 예정의 교리보다는 회개와 결단과 믿음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노선과 교과들과 협력하며 교류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부흥운동의 시대에서 배운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신앙고백을 만들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들어 있는 예정론을 한국교회에 채택하는 것을 꺼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국에서 만들어졌고 인도교회에서 사용하던 이 중 예정론과 제한 속죄가 들어 있지 않는 12신조를 한국교회를 위하여 택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선교사들의 신학적 입장과 한국에서의 더 효과적인 선교와 부흥운동을 위해서 채택되었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한국교회가 올바른 개혁주의적 예정론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교회에서도 그들이 속해 있는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한국교회의 실정에 맞게 만든 신앙고백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였다. 장로교회 들 중에서 이런 신앙고백을 만든 교단이 기독교한국장로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다. 이들 교단이 만든 신앙고백서에는 예정론이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봄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정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가를 가늠할 수 있다. 먼저 한국기독교 장로회에서 1972년에 <새 신앙고백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새 신앙고백서>는 전문과 제7장으로 되어있다. 이 중 제2장 2항에서 섭리와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진술을 한다. 여기서 예정론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을 보면 “성서는 섭리와 함께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말한다(롬8:29, 9:19-29). 사람에게 는 종족, 가정, 성별, 언어, 신체의 조건과 같은 자신의 의지의 결정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전7:17-24, 요9:1-3)”¹⁴⁵⁾라고 하며 또 “예정 신앙은 속명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은총으로 선택하시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신앙고백서에도 개혁주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칼빈주의적이거나 개혁주의 신조에 나오는 예정론의 중요한 내용인 이중예정이나 제한속죄 등을

145) 이형기, 412.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한국 그리스도인의 성명(1973), 우리의 신앙고백(1976), 제5문서(1987)등을 발표하였으나 예정론에 대한 언급은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서는 198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발표하였다. 서문과 10장에 걸쳐서 항목별로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고백서에서는 예정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제2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제4항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진술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며, 지배하시고, 인도하심을 가리킨다.”는 정도의 언급 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개혁주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구원의 체계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예정을 얼마나 무시하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는 1917년 승동교회에서 회집된 제6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채용결의 함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함께 신조로 고백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우리 총회가 1917년 승동교회에서 회집된 제6회 총회에서 채용 결의한 웨스트민스터 헌법 중 성경 소요리문답은 헌법 책에 포함시켜 출간하였으나 신도게요서와 성경 대요리문답은 헌법 책에 편집하지 아니한 고로 불편을 느끼던 중 금번 위원회의 결의로 1969년 9월 20일 본 총회가 별책으로 발행한 성경 대요리문답은 소요리문답과 연하여 편집하고 신도게요서는 부록으로 편집 출간하게 되었다.¹⁴⁶⁾

한국에서 토착화 신학이 논의되기 시작 할 즈음인 1963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정식으로 채택을 하였고, 고신장로교회에서는

146) 헌법, 3.

1973년 합동 장로교 선례를 따랐다.¹⁴⁷⁾ 그러므로 한국의 장로교회는 칼빈과 개혁주의 신조의 전통을 따르는 헌법과 신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장로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개혁주의 신앙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여서 예정론에 근거한 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하며,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과 복을 알아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2. 한국교회에서 예정론에 대한 태도와 방향

예정교리가 칼빈의 신학이고 또 정통주의적 개혁주의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는 이 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할뿐더러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이 피선교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정론의 정통교리를 포기하여 버렸기 때문이다. 초기 선교사들은 미국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회심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기로 결심한 자들로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깊이 있는 신학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고 선교지로 왔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받은 교육과 출신 학교를 보아서 당시 구과로 볼 수 있다. 1893년에서 부터 1901년 사이에 미국 북 장로교 출신으로써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활동하던 선교사가 4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16명이 프린스톤 신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1명은 메코믹 신학교 졸업자들이었다. 그리고 당시 프린스톤 신학교에는 하지(A. A. Hodge, 1823-1886)가 교수로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며, 타협 없는 칼빈주의자로 알려진 워필드(B. B. Warfield, 1851-1921)가 아직 건재하면서 학생들에게 감화와 영향을 주고 있었다.¹⁴⁸⁾ 그러나 한편 선교사들이 실제 활동을 하면서 한 일을 보아서 신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부흥운동에 적극적이었고, 한국교회가 반드시 장로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집하지 않았으

147) 김영재, 211.

148) 김영재, 207.

며, 한국인의 신학 교육에 대한 문제도 옛날 신파가 가졌던 것과 비슷한 견해를 가졌다. 첫선교사인 장로교의 언드우드와 감리교회의 아펜셀러가 서로 협조하면서 교분이 두터웠는데, 1905년에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연합회의에서 한국에 단일한 조선 그리스도 교회를 설치하려고 합의를 보았을 정도로 서로 관용을 하였다는 것은 의외의 사실로 볼 수 있다. 19세기 중엽에서부터 복음주의와 부흥운동이 세계 선교를 촉진케 하였으며, 교파를 초월하여 활동을 하고 협력하는 경향이 다분하였다. 그러므로 미국 장로교회 내에서는 엄격한 칼빈주의를 고수하는 경향이 퇴조하였다.¹⁴⁹⁾ 그런 이유로 초기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예정론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1907년 이중 예정과 제한 속죄가 없는 12신조를 대한예수교장로회(독노회)가 받아 들였기 때문에 오늘날 까지 개혁주의적인 예정론의 고백이 약화되어졌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목회자를 양성하거나 성도들을 가르칠 때 예정론을 가르치지 않고, 보편구원론적인 태도를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편구원이란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사실 이 교리는 초기 한국 교회 목회자 부흥사들이 설교한 내용이다. 그리고 오늘 날도 많은 장로교회와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설득력이 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개혁주의적인 올바른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다.

보편구원론은 구원을 받을 자가 예정이 되어있으므로 택함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제한 속죄 교리를 부정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즉 전 세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또 모든 사람이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 성경 디모데 전서 3,4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149) 김영재, 208.

를 원하시느니라.”와 에스겔33:11“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리고 베드로 후서 3:9“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 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며, 악인은 불택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여 하나님과 연합 할 수 없게 된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조에서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칼빈주의적 이고 개혁주의적인 바른 예정론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도 이것을 바르게 배우고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예정론이 칼빈 신학의 중요교리 중의 하나이고 또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구원과 신앙에 아주 중요한 교리라면 이것은 목회에도 큰 도움이 되어야 하고 유익한 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미국의 부흥 운동 기와,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의 신학,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복음 전도와 부흥에 있어서 예정교리가 부정적으로 간주되어졌다. 예정교리에 의하면 한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사람이 미리 다 예정이 되어 있으므로 전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도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구원을 받을 자와 모든 것이 이미 예정이 되었다면 운명론적이고 결정론적인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독교인의 신앙 사상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다. 그러므로 신학은 예정론을 배우지만, 목회와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은 예정론 보다는 아르미니안주의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정론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이다. 예정론의 사상은 성도의 신앙생활과 목회자들의 목회에도 크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국교회는 칼빈과 개혁주의 신조들에 나오는 예정론 교리와 신앙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성도의 신앙과 선교에 걸림돌이 아니라 큰 도움이 되며 확신을 주는 교리라는 것을 다시 인식을 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개혁주

의적 예정론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가 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 수가 있다. 뵈트너(Loraine Boettner)는 말하기를 전적 무능력을 인간의 자유 의지와 겸하여 설명하기를 ‘날개 상한 새’와 같다고 하였다.¹⁵⁰⁾ 즉 날개를 다친 새는 하늘을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것은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한다. 칼빈도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예정론이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하며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진실로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본다.”¹⁵¹⁾라고 하였다.

예정론은 성도들이 궁극적 승리의 삶이 있는 것을 알게 한다. 그 이유는 믿는 자를 “예정하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불변하시며 전지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므로 그 행하신 선택은 중단 되거나 변하거나 취소되거나 무효화 될 수가 없다. 또한 택함 받은 자는 버림을 받거나 그 수가 감소 될 수도 없는 것이다”¹⁵²⁾고 했다. 그리고 이것은 칼빈주의의 5대 교리의 마지막 교리인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정론은 성도들에게 선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한다. 바울은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자 할 때 두려움을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말씀을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행18:9-10)라고 하셨다. 여기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자나 선교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지만 한 사람도 결실을 얻지 못하였거나, 작은 숫자의 사람만 구원을 얻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전도인 들은 실망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

150) Loraine Boettner, 80.

151) *Inst.*, 3. 21. 1.

152) 김의환 편저, 266.

로 이런 경우도 전도인 들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기뻐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을 믿는 신앙의 위대한 힘인 것이다.

D. 평가

지금까지 칼빈의 예정론을 비롯해서 초기개혁주의 신조에 나오는 예정론, 그리고 후기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예정론을 살펴보면서 개혁주의적인 예정론의 특성과 중요성을 살폈다. 그러나 “예정론의 위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 예정론의 위치는 각 시대마다 다르게 발전을 하였다. 칼빈은 예정론을 구원론의 일부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예정론을 원인을 중요시하는 정통주의의 영향으로 신론을 설명하는 제3장에서부터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예정론을 신론에서 다루어야 하는지, 아니면 구원론에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의 위치에서 예정론을 어디에 두는 것이 옳은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다. 현 시대는 당시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칼빈의 신학과 개혁주의의 신앙고백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대이다. 비록 다양한 신학 사상을 가진 교과들이 있지만 킬빈주의적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자로서 예정론이 무엇이며 또한 그 위치와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은 먼저 신론을 기술한 다음 창조론을 기술하고 그 다음으로 예정론을 기술한다.¹⁵³⁾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것은 이 세계가 창조되고 예정이 되어있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¹⁵⁴⁾ 김균진은 하나님의 영원한

153) 이종성, *신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351-364.

존재 자체,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상호 교통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예정을 하셨음을 논하였다. 따라서 구원의 창시자인 성자로 하여금 사람의 몸을 입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결정은 창조 이전부터 계신 존재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논하였다.¹⁵⁵⁾ 그러면서 김균진은 예정론은 칼빈과 같이 구원론과 결부하여 기술을 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예정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자체의 사건이므로 예정론은 신론의 한 부분으로서 삼위일체론 다음에 기술을 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하였다.¹⁵⁶⁾

그리고 도르트 신조를 만들 때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만들 때는 그 당시의 독특한 상황이 있었다. 칼빈의 예정론을 대항하는 아르미안주의 세력의 도전이 거셀 때였다. 그러므로 그 당시는 예정론이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신론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조직신학적인 체계에서는 예정론이 신론에서 설명 될 수도 있음을 인정을 해야 할 것이다. 개혁신학자들 중에서는 예정론을 신론에서 논하려고 한다. 특히, 쾰링은 그의 논의를 단순히 인간학적 근거에서가 아니라 신론에 근거를 두면서, 즉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그 논의를 이끌어 내면서 예정론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로마서 9-11장에서 죄론과 은총론에서 시작하여 선택론으로 나아가고, 에베소1:3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을 그 출발점으로 삼는 사도 바울의 예를 따라 전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바울이 후에 선택을 언급하면서 신론에서 구원의 축복을 선택으로부터 이끌어 냈던 것처럼(롬 9:29이하, 엡1:4이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신론에서 예정론을 제시하는 구조를 확립하였다.¹⁵⁷⁾ 점차적으로 개혁신학자들은 선행적 순서(신론)를 따랐다. 그러므로 개

154)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261.

155) 김균진, 261-262.

156) 김균진, 262.

157) Herman Bavinck, **개혁주의 신론**, 김영규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514.

혁과는 예정론을 선협적이고, 철학적이며, 결정론적인 신론 개념에서 이끌어 내었다. 즉, 개혁과 신학에 있어서는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정론의 가장 주된 목적으로 확립되어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¹⁵⁸⁾

그러나 예정론은 신론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칼빈처럼 구원론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미 루터파와 아르미니안파, 로마 카톨릭과 대부분의 근대 교의학자들은 점차 후협적 순서를 취하기 시작을 하였다. 개혁주의 신앙의 근거는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늘날 인상인들이 받아들이는 개혁신앙의 근거와 출발점은 개혁자 칼빈의 신학이 가장 체계적으로 기록된 기독교 강요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강요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다시 칼빈의 경우처럼 예정론을 다시 구원론의 자리에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 칼빈은 성령론 안에 있는 구원론에서 예정을 설명을 한다. 구원론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순서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을 하고 있다. 구원론 중에서도 구원의 모든 것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으로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하고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구원을 받기위한 사람의 교리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위한 교리인 것이다.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정을 먼저 설명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는 결코 사람의 선택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택하시고 예정을 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라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예정론의 위치를 칼빈의 기독교 강요처럼 구원론에서 논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158) Herman Bavinck, 518.

IV. 결 론

본 논문을 통하여 초기 개혁주의 신조에 나타난 예정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연구하여 초기 개혁교회의 예정론을 보다 분명하게 재구성을 하여 보았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교회의 예정론을 살펴보았다.

벨직 신조에서는 예정론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장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제16장에서 21장까지의 기독교론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설명을 한다. 그리고 22장부터는 구원론을 설명을 한다. 이것은 칼빈의 기독교강요의 체계와는 많이 다를 것을 보여준다. 기독교강요에서는 예정론을 구원론에서 다루지만 구원의 서정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예정론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구원은 신앙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함으로 성도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러나 벨직 신조에서는 예정론을 말하고 기독교론과 구원론을 말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택한 백성의 구원의 근거로서 예정론을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보다 원인을 중요시하는 정통주의적인 영향을 훨씬 많이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도르트 신조에서 틀립이라고 부르는 칼빈주의 5대교리가 나왔다. 칼빈주의 5대교리는 1)전적무능력(Total Inability) 2)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3)제한적 속죄(Limited Atonement) 4)불가항력적으로 내려주는 은혜(Irresistible Grace) 5)성도로의 견인(Perseverance of Saints)이다. 도르트 신조의 내용은 제1교리는 거룩한 예정에 관하여, 제2교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인간의 구원, 제3,4교리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에게로 향한 인간의 회심 및 그 방법, 제5교리는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이다.

도르트 신조의 예정론은 타락전 예정론이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말한다. 그리고 이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서 되어진 것으로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정 교리는 성경이 증거 하는 것이며, 도르트 신조의 거의 모든 내용이 예정론으로 되어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타락전 예정론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본 신앙고백은 개혁주의 신앙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제33항까지가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예정론이 가장 명백하게 나오는 곳은 신론을 설명하는 제3장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예시이다.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예정론의 위치를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는 달리 신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즉 삼위일체론(2장)을 설명하고 곧 이어서 예정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도르트 신조 후 예정론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과 인과응보를 따지는 정통주의 시대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이중 예정에 대해 8개항에 걸쳐서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증보사역,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부르심, 구원의 서정 등이 모두 예정의 교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특징은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통해서 설명을 한다. 이런 언약사상 역시 예정론에 근거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 예정론은 중심적인 교리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혁주의 신조에 나타난 예정론을 칼빈과 후기개혁주의 신학자 그리고 한국교회에서의 예정론을 비교하면서 평가를 하였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구원론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예정론을 말하고 있다. 칼빈은 예정론을 구원론의 마지막에 둠으로서 성도들이 최후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론의 위치는 후기 개혁주의 신조들이나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것은 칼빈의 후예들이 칼빈의 신학을 전통주의적인 방법으로 체계화를 하였기 때문이다. 칼빈 신학의 예정론의 중요 교리인 이중예정, 예지예정의 거부, 타락전(혹은 후) 예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 성도의 견인, 자유의지

를 배격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신조들이 다 고백을 하나, 벨직 신조는 예지, 타락전 예정,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없다.

후기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 하지와 워필드는 예정론을 구원론의 체계에서 다루고 있으나 칼빈과는 달리 예정론을 먼저 말하고 구원론을 말 한다. 그러나 벨코프와 박형룡은 신론에서 예정론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신학을 조직신학적으로 진술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성취하신 예정론이 선형적인 순서에 따라 신론에서 진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정론의 위치를 신론 구원론에 두어야하는 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목회자가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칼빈이 예정론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믿는자들은 칼빈처럼 예정론을 구원론에서 말 할 뿐만 아니라 구원론을 설명한 후 마지막에 하나님의 예정을 말함이 옳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정론부터 말하고 복음을 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으로 된 것임을 알 때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

개혁주의적 예정론이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임에도 한국교회에서는 아르미안주의적이 되거나 그 의미가 희석이 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의 영향과 부흥과 전도를 위한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는 교파들과의 교류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주의 신조들에 나오는 예정론의 교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예정론은 성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며 결코 성도의 신앙과 선교에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개혁주의적 예정론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교리이다. 또 이것은 성도들을 겸손하게 한다. 또 예정론은 성도들이 궁극적 승리의 삶이 있는 것을 알게 한다. 마지막으로 예정론은 성도들에게 선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한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

만 하나님의 예정하신 백성들이 곳곳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도자나 선교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지만 한 사람도 결실을 얻지 못하였거나, 작은 숫자의 사람만 구원을 얻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결코 실망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도 목회자들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기뻐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을 믿는 신앙의 위대한 힘이다.

참고 문헌

- 김강덕. “칼 바르트(Karl Barth)의 예정론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1.
-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 김기형. “칼빈주의 예정론 고찰.” 석사학위논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04.
- 김병훈. “칼 바르트와 존 칼빈의 예정론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1999.
- 김종교. “도르트 회의 예정론 논쟁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끼친 영향고찰.”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1998.
- 김종명. “칼빈과 칼 바르트의 예정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원, 2001.
- 김주성. “칼 바르트의 예정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1.
- 김진운. “J. Calvin의 예정론과 K. Barth의 예정론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7.
- 김원. “칼비의 예정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9.
- 김영재, **교회와 신앙고백**. 서울: 성광문화사, 1989.
- 김의환, 편저. **개혁주의 신앙 고백집**.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 김종희. “칼빈의 삼위일체적 예정론.”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0.
- 김현동. “갈뱅과 바르트의 예정론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9.
- 김형기. “갈뱅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1.
- 김희중.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예정론 소고.”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신학대학원, 1991.
- 라보도. 편저.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박정민. “칼 바르트(Karl Barth)의 예정론 고찰.”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4.
- 박형룡, 박형룡저작전집 제2권: 교의신학 신론.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원, 1988.
- 이승학. “개혁교회 신조에 나타난 예정론.”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 1983.
- 이장식. 기독교 신조사(2). 서울: 신일 인쇄사, 1979.
- 이종성. 신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 이형기. 세계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경기도: 대한기독교서회, 1992.
- 정재돈. “칼빈의 예정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대학원, 서울, 2002.
- 조익홍. “칼 바르트 예정론 소고: 교회 교의학Ⅱ 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1.
- 최병섭. 개혁과 신조서들의 신학 사상들. 서울: 새순출판사, 1998.
-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1995.
- 황재범. “칼빈의 예정론 이해.”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1986.
- Bavinck Herman. 개혁주의 신론, 김영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 Berkhof Louis. 별콧 조직신학 상.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 문화사, 1999.
- Boetner Loraine. 칼빈주의 예정론, 홍의표 편역. 대구: 보문 출판사, 1987.
- Calvin John. 기독교강요 중. 김종흠 신복운 이종성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 . 칼빈의 예정론,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3.
- .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관하여(존 칼빈의 신학논문), 김진수 김기수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 Dowey. E. A.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New York: 1994.
- Hesselink I. John. *Calvin's First Catechism*. Kentucky: Westminster John

- Knox Press, 1997.
- Hodge Charlse. *Systematic Theology, vol 2* Grand Rapids: Wm. B. EerdmJoelans Publishing Company, 1993.
- Klooster. Fred. H. 칼빈주의 예정론. 신복윤 역. 서울: 성광 문화사, 1994.
- McKim. Donald K. 칼빈신학의 이해, 이종태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 Meeter H. Henry. 칼빈주의의 근본 원리. 신복윤 역. 서울: 성광 문화사, 1990.
- Niesel Wilhelm. *The Theology of Calvin*, trans, Harold Knigh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 Parker T. H. L.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R. Beeke Joel and B. Ferguson Sinclair editor, *Reformed Confessions Harmonized*: Grand Rapids : Baker Books, 1999.
- Schaff Philip. 신조학. 박일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 Warfield. Benjamin B. 구원의 계획. 모수환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터, 1996.

A Study of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in the Confessions of the Reformed Theology

Park, Keun-Seuk

Department of Theology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Under the supervision of Professor Hwang, Jae-Bum)

(Abstract)

The thesis aims at studying how the concept of predestination has developed and reorganized in the early confessions of the Reformed church. It will also study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s doctrines of predestination. The Belgic Confession includes a short statement of predestination in its 16th chapter. Systematically the Confession does not mention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in that of God, while it is followed by soteriology. This means that the Belgic Confession is very different from the system of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y John Calvin, which locates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in that of salvation. Placing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before Christology, the Belgic Confession says that it is God's election or predestination on which Jesus Christ came into this world to save his elect, and to leave the rest, a point reminiscent of Calvin's doctrine of double predestination. This shows that the Belgic Confession was influenced by the orthodox or scholastic thinking which gives more importance to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than does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y John Calvin.

The Canons of Dort was made to answer to the five protests of the Armenian theologians and produced the five principles of Calvinist theology (Total Inabil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and Perseverance of Saints). The Canons of Dort puts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at the center; it is the basis on which stand the doctrines of salvation in Christ, sanctification, and final salvation by perseverance of saints.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which represents a new--ortho- dox--phase of the Reformed theology, speaks of "God's eternal decree," which is the basis of predestination. In the Confession,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is the basis of its theology. It is different from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y John Calvin. This is due to the influence of the 17th century Reformed orthodoxy on the Confession. The Canons of Dor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edestination and tried to find the cause and the effect of God's salvati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advocates the doctrine of double predestination, which means that some people were predestinated to be saved, while some others were predestinated to be perished. In the Confession,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becomes the foundation of the following doctrines of christology and soteriology.

On the basis of the Westminster Confession, Charles Hodge and Benjamin Warfield give importance to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and soteriology. And they put predestination before salvation, which is different from Calvin's method. But L. Berkhof and Park Hung-Yong places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in that of God. Hence there is a dilemma: whether to put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in that of God or in that of salvation. But we have to consider predestination in the doctrine of salvation as Calvin did. This enable us to understand that salvation is not from our desire but from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This is systematically good, because we cannot practically preach predestination before salvation.

But in these days faith on predestination is weak in the Protestant churches of Korea. This is partly due to the Western missionaries to Korea, who emphasized revivalism and evangelism which do not value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Unfortunatel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es in Korea accepted the 12 Statements of Faith that do not include the doctrine of double predestination. This event has given a way to make faith on predestination weak the Presbyterian churches in Korea.

Therefore the Churches in Korea, have to recognize and reconsider again that the predestination in the confession of reformed theology is not an obstacle but very helpful for the faith of the saints, missionary works and conviction of salvation.

초기개혁주의신조에 나타난 예정론 연구

- 벨직신조 · 도르트신조 ·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중심으로 -

박 건 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신 학 과

(지도교수 황 재 범)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초기 개혁주의 신조에 나타난 예정론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연구하여 초기 개혁교회의 예정론을 보다 분명하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교회의 예정론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먼저 벨직 신조는 전체가 37개 조항으로 되어있다. 이중 예정론은 제16장의 영원한 선택에서 짧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예정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무조건 적인 선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 이중예정 등을 말하고 있다. 벨직 신조에서는 예정론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장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제16장에서 21장까지의 기독교론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설명을 한다. 그리고 22장부터는 구원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예정론을 구원론에서 설명하는 칼빈의 기독교강요의 체계와는 많이 다를 수 있다. 벨직 신조는 예정론 다음에 기독교론과 구원론을 말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택한 백성의 구원의 근거로서 예정론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정론에 근거하여 기독교론과 구원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보다 원인을 중요시하는 정통주의적인 영향을 훨씬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도르트 신조는 아르미안주의 5가지 항의에 대한 대답으로 여기에서 툴립이라고 부르는 칼빈주의 5대교리가 나왔다. 이것은 1)전적무능력(Total Inability) 2)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3)제한적 속죄(Limited Atonement) 4)불가항력적으로 내려주는 은혜(Irresistible Grace) 5)성도로의 견인(Perseverance of Saints)이다. 도르트 신조의 내용은 제1교리는 거룩한 예정에 관하여, 제2교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인간의 구원, 제3,4교리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에게로 향한 인간의 회심 및 그 방법, 제5교리는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 이다. 도르트 신조는 첫 번째 교리에서 구원을 얻은 자의 믿음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말한다. 또 예정의 내용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이며, 선택과 유기의 이중 예정이고, 선택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중보자와 택한 자의 머리 그리고 구원의 기초로서 세우신 그 분 안에서 구원 받을 자의 일정한 수를 뽑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서 되어진 것으로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도르트 신조는 이런 예정의 교리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 구원과 성화의 교리와 성도 견인을 통한 궁극적인 구원을 설명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개혁주의 신앙의 내용을 잘 표현한 것으로 제33장까지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예정론이 가장 명백하게 나오는 곳은 신론을 설명하는 제3장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에서이다. 이처럼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예정론의 위치를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는 달리 신론에서 설명을 한다. 이것은 도르트 신조 후 예정론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과 인과응보를 따지는 정통주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장은 이중 예정, 즉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은 구원으로 어떤 이들은 멸망으로 예정하셨음 사상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중보사역,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부르심, 구원의 서정 등이 모두 예정의 교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후기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 하지와 워필드는 예정론을 구원론의 체계에서 다루고 있으나 칼빈과는 달리 예정론을 먼저 말하고 구원론을 말 한다는 것이다. 벨코프와 박형룡은 신론에서 예정론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선형적인 순서에 따라 예정론을 신론에서 진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정론의 위치를 신론에 둘 것인가 아니면 구원론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칼빈이 예정론을 어디에 두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칼빈처럼 예정론을 구원론에서 말해야 한다. 그리고 구원론을 설명한 후 마지막에 하나님의 예정을 말함이 옳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예정론부터 말하고 복음을 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중 예정에 근거한 개혁주의적 예정론이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 임에도 한국교회에서는 아르미안 주의적이 되거나 그 의미가 희석되었다. 이것은 한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의 영향과 부흥과 전도를 위한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는 교파들과의 교류 때문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1907년 이중 예정과 제한 속죄가 없는 12신조를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가 받아 들어서 개혁주의적인 예정론의 신앙이 약화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칼빈과 개혁주의 신조들에 나오는 예정론이 성도의 신앙과 선교에 걸림돌이 아니라 큰 도움이 되며 확신을 주는 교리라는 것을 다시 인신을 해야만 한다.